FEB 1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054–1055 1983년 2월11일(금) & 1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February 11 & 12,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코뮤니티 지도역할, 융화에 큰 영향

"교민 정착 성공적이다"

몬트리얼 교민 실태조사 결과발표

캐나다의 한국이민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에 경제적 성공도가 높고, 종교적 확신이 크며, 한인사회 코뮤니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복합문화성 자문위원회의에서 몬트리얼의 정회수박사(경제학)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서 정박사는 "한국계 이민의 융화는 캐네디언사회와의 직접 접촉보다는 한인코뮤니티 지도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에트닉 코뮤니티의 지도자 자질향상및 코뮤니티문제연구에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한인학자회(회장 정회수, 부회장 오기송, 총무 정영섭)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으로 82년 3월부터 8월까지 몬트리얼지역 교민 125명을 무작위 착출, 조사 분석한 이 논문은 정박사이외에 몬트리얼교민 김춘회씨, 정숙진씨등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발표에 따르면 한인이민의 사회·문화적 융화도는 수입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별로는 공무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교민의 융화로는 가족의 결속도, 조부모의 가정생활에의 만족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박사는 논문서두에서 이번 발표내용이 가장 많은 한인들이 집결돼 있는 토론토지역이 아닌 불어권의 퀘벡주내의 몬트리얼지역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체 한인의 실태로 연장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한인이민에 관한 개척적인 분석·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한인의 정착을 돕기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돼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몬트리얼 교민의 42%가 이민생활에 만족하며, 46.3%가 연수입 2만달러이상이었고, 종교는 가톨릭이 37.7%, 신교가 47.5%였다.

조사대상자의 5분의 4가 71년이후 캐나다에 도착했으며, 57.1%가 주택을 소유했고, 그중 42.4%가 6만달러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캐나다 국립발레단의 겨울철 공연이 9일밤 토론토 오킵센터에서 개막됐다. 사진은 이날 개막공연작품인 〈코펠리아〉에서 주역으로 나온 케런·케인과 프랭크·어거스틴. "살아있는 인형"이라는 평을 듣는 케런·케인은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는 매번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국립발레단의 겨울시즌은 27일까지 계속된다. 티켓문의는 698–2626으로 하면 된다.

인터뷰

최초의 교민실태 조사를 주도한

몬트리얼의 정회수(경제학)박사

"이민의 정착과정도 근본적으로는 심리적인 적응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개개인이 자신을 발견해내어 자신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 빠를수록 적응도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한인학자회회장인 정회수박사의 말이다.

60년 UT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딴 정박사는 라발대학에서 사회학학사와 경제학석사를 마쳤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퀘벡대학 정교수이자 동 대학부설 부동산문제연구 소장으로 있다.

몬트리얼 한인회장이기도 한 그는 54년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발을 딛은후 30년간의 자기생활이 모든 이민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가 조금씩 포함됐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생을 얘기하기를 주저치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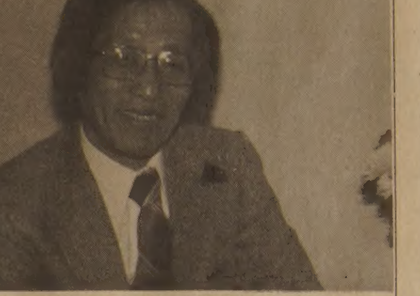
수년전 Financial Post에서 퀘벡주의 장래를 쥔 주요인물 8명중에도 끼었고, 학계·정계에서도 발판을 굳혀 퀘벡 자유당정책자문위원등 여러공직에도 관여해 오는등 개인적 성취감은 어느정도 이루었지만 항상 자신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부딪친다고 말했다.

「8년전 12년간의 프랑스계 캐네디언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했고, 몬트리얼 한인회장을 맡는등 한인사회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 것은 모두 내 자신을 찾기 위한 작업상의 외연물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수용하고 과거의 불안, 죄의식에서의 해방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덴티티의 확립도 빨리지고 행복감도 빨리 옵니다.」

그는 이민자로서의 아이덴티티는 "한인 코뮤니티와 캐나다 사회라는 환경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이민 2세의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해서는 부모인 이민1세들이 성장을 위한 공부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가정, 심리, 경제문제등 코뮤니티의 특수한 문제를 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캐나다 한국인문제연구소등을 설치해서 전문적인 "이민병"을 퇴치하려는 범교민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영·불어 저서 40여권, 논문 70여개가 있으며, 슬하에 19살된 딸이 있고 최근들어 "전문분야에서 한국을 위해일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짙어졌다고 말했다. 〈래〉



◆"이민정착상의 성공은 개인이나 결혼생활에서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 낸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회수박사.

대미 최대투자국은 캐나다

미 상무성 나라별 투자규모 발표

(워싱턴–AP)캐나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쿠웨이트가 81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들로 25일 미 상무성이 발표했다.

제일 큰 투자회사는 캐나다의 「브론프만」가족회사로 미국에 있는 「씨그람즈」양조회사지사를 통해 「듀퐁」화학회사의 주식 20%를 매입한 것이다.

상무성은 73년부터 외국회사의 국내 투자를 조사보고하고 있는데 이번 통계는 공식으로 밝혀진 자료들로서 주로 부동산, 회사 합병, 새 공장 건설, 자본투자등을 집계한 것이며, 주식매입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나라별 투자액수를 보면 캐나다가 1백1억달러, 영국이 44억, 프랑스 33억, 일본 13억, 서독 11억, 네델란드 8억, 오스트레일리아 8억, 남아프리카 7억, 이탈리아 5억, 노르웨이 2억6천만 달러의 순이다.

한국,고문행위 상존

미국무성 지적

(로이터)한국에서의 인권은 지난 한해동안 어느정도 개선됐으나 아직까지도 고문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미국무성이 8일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무성은 한국정부가 82년중 김대중씨를 비롯한 80여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으나 아직도 3~4백명의 정치범이 투옥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 고〉

본사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인업소전화부는 2월20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이달말일경에 발간예정입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 해당업체나 신설되는 업체는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업소전화부에 실릴 유료광고에 관한 제반문의는 칠성광고에서 별도로 접수합니다.

한국일보사

"한국등으로부터 의류수입 줄여라"

캐나다 섬유업계정부에 촉구

캐나다의 섬유및 의료업계는 한국·중공·홍콩·대만등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에 즉시 일방적인 쿼터량을 정할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연방정부가 지난주 이들 4개국과의 의류수입감축에 대한 쌍방재협상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있은후 나왔다.

지난해 가을 연방정부는 국내 의류및 섬유산업의 요구를 받고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을 줄이기 위한 5개년 합의를 재협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연방정부의 섬유협상대표인 외무성내의 특별교역관계실장인 캠벨·스튜아트씨는 지난주 극동순방에서 돌아와 이들 4개국과의 섬유협상에 실패했다고 보고했었다.

캐나다 의류생산자협회는 9일 성명을 발표, 연방정부는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83년부터 86년까지의 섬유수입 쿼터량을 80년도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섬유연구소도 제랄드·레간 국제무역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금년도 의류 수입량을 80년도 수준인 1억4백20만벌만 수입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83년도 쿼터량인 1억2천9백50만벌보다 20%, 82년의 실제 수입량인 1억1천80만벌보다 8% 줄어든 숫자이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기 간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귀국선물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외할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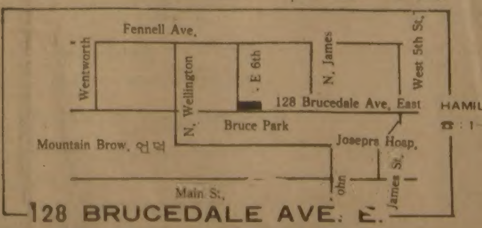
특별세일기간
2월8일(화)
~3월8일(화) 까지

□ 100불이상 상품구입시
쌀50Lb(선학표 또는 가주미)
1푸대 Free
□ 50불~99불 상품구입시
라면(사뽀로 또는 삼양)
1Box Free
□ 30불~49불 상품구입시
닭표간장(900ml) 1병 Free

★일일이 많은 스페샬품목을 열거치 않겠읍니다.
모든상품을 토론토사상 최하가격으로 봉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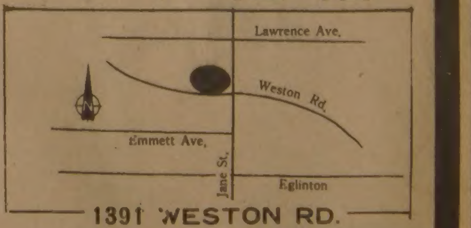
※Free 품목은 쌀, 불고기, 갈비, 참기름, 간장및 Box품목
(예 : 라면등)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 1–385–1485
해밀톤 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243–9544
서 부 서울식품



1391 WESTON RD.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샤론 이스라엘 국방상 사임압력

난민촌 대학살 조사위원회

(예루살렘)10년전인 73년 중동전때 이스라엘군대를 이끌고 수에즈운하를 건너 이집트로 진격,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송까지 들었던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이 8일 사임을 요청받았다.

작년 가을 베이루트에서 있은 기독교 팔랑헤당의 무차별 대규모난민학살사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띈 대학살조사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책임자로서 "팔랑헤당이 피의 복수극을 벌일 위험을 사전탐지 못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샤론 국방상을 비난했다.

81년 국방상에 취임한 샤론장군이 사임할지의 여부는 8일 현재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사임요구가 모나캄·베긴 수상의 이스라엘정권에 타격을 준 것만은 확실하다.

베긴정부는 베이루트 난민촌 학살을 이스라엘 정부가 묵과, 무고한 난민들을 수백명 죽게 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 때문에 집권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신간서적 안내

한국문화 해외소개

서울의 대학서림은 한국의 역사이야기·설화등을 영어판 그림책으로 엮어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제1회분 5권을 출판했다.

7.5×10.5인치 크기에 48페이지의 칼러판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책은 (1)나라의 시초(Emperor Tangoon, Father of Korea), (2)은혜를 갚은 제비(the Grateful Swallow), (3)을지문덕 장군(the Hero of the Sal River Battle), (4)바보온달과 평강공주(Princess Pyonggang), (5)불국사의 빛(Dazzling Pulguk Temple)등이다.

동화작가가 이영호씨가 글을 쓰고 Bruce K. Grant씨가 번역하고 그림은 김윤식씨가 그렸다.

대학서림 대표 윤진영씨는 이 영문판 그림책의 해외판매 촉진을 위해 현재 북미순방중, 8일 본지를 방문했다.

윤씨는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토론토를 방문했다고 전하면서 이 그림책은 한국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캐나다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교민자녀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또한 이책은 일본어판으로도 발간되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등 6개국과 수출계약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Korea for Children

A Treasury of Legends, Myths and Heroes

EMPEROR TANGOON, FATHER of KOREA

DAIHAK Publishing Company

KOREA

◆영어로된 한국전래동화책 총 5권중의 하나인 「나라의 시초」의 표지.

키와니스 2년째 일등

손명수씨딸 수지양

태권도 사범 손명수씨와 송현숙씨의 차녀 손수지(Susanne Son)양이 지난 7일 키와니스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년째 1등 입상했다.

9살인 손양은 이날 11살이하 부문에 출전, 40명 참가자중 90점으로 최고점수를 땄다.

지도교사는 김병희씨, 피아노 경력은 4년이다.

2월14일은 발렌타인즈·데이

고대 로마풍속에서 유래

2월14일은 구미각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발렌타인즈 데이이다.

이날의 유래는 고대로마의 "루퍼칼리아(Lupercalia)"라고 불리우는 젊은 연인들의 축제로 부터 시작된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축제의 일부를 도입해 지켜오다가 서기 200년경 이태리에서 살고 있었던 발렌타인 신부의 성호를 기념하는 축제가 점점 퍼져 본격적인 민속으로 확산케 되었다.

발렌타인즈 데이를 앞둔 2-3주 전에 스토아나 백화점등에는 가지각색의 발렌타인 카드나 선물이 나돌며 각급학교에서는 이날의 유래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며 교실마다 장식을 하여 사랑의 날을 준비한다.

카드는 부부간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보내는 각양각색의 내용과 모양으로 낭만적인 것, 아주 재치있는 것, 환상적인 것, 단순한 것, 싼것등 천차만별의 종류가 있다.

발렌타인의 상징으로는 대부분 하트, 장미꽃, 큐피드, 핑크나 빨강색이 사용된다.

이날은 말못하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도 용납되므로 많은 연인들이 마음조이며 기다리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계절이다.

영어토론클럽 모임

12일 Y회관에서

지난 1월중순 창설된 한인Y 성인영어토론클럽은 차기 모임을 오는 12일(토) 하오 5시15분 Y회관(College & Dovercourt)에서 갖는다.

격주로 모이는 이 영어토론클럽은 차기모임의 토픽으로 미터법 실시에 관한 찬반과 조·틀락의 진회와 보수당의 집권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정했고 이날 토론의 사회는 한혜식씨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클럽은 약 1시간반 동안의 영어토론 끝에 지도교사인 스작·레제양으로부터 표현, 발음, 구사력에 관해 지적을 듣게 된다.

월회비는 $5이며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536-1166 김창열 총무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역배우 콜만 입원

신장이식 수술 위해

(로스·앤젤레스)TV 연속물 "Diff'rent Strokes"에 주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인 아역배우 게리·콜만군이 8일 15회 생일을 병원에서 맞았다.

1회분 출연마다 3만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콜만군은 지난 6일 신장을 재이식받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UCLA 메디칼·센터에 입원했었으나 신장이식 대신 9년전 이식받을 때 생긴 상처로 인한 종기를 짜내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순조로운 회복을 보이고 있는 콜만군은 8일 낸시·리건 미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소원성취를 기원한다는 생일카드를 받았다. 낸시여사는 3월중 방영될 (에피소드)에 콜만군과 함께 출연한다.

콜만군은 적당한 신장이 제공되는대로 신장 재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그 때까지 하루 4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장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게리·콜만군.

"아들·딸 選別임신 가능하다"

日 東京大등 교수 XY精子 완전분리 성공

電気流動장치 이용…암수精子 조절

세계최초로 인간의 XY정자를 분리하는데 성공, 아들 딸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임신할수 있게될 날도 멀지 않을 것같다.

일본 동경대 모리, 나까서마교수와 경응대의학부 가네꼬연구팀은 최근 프리·플로전기유동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XY정자를 완전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완충액을 사용하지않고 세포 표면전립의 미세한 차이를 이용하여 Y정자와 X정자를 90%이상의 높은 비율로 분리해냈다.

연구팀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후 특별한 영양액에 담가 일차 원심분리조작한 후 잡세포등을 제거하여 전기유동장치에 넣었다.

이 전기유동장치내에 정자를 물과함께 투하하면 음양극의 전극에 끌어당겨져서 완전 분리된다.

연구팀은 이번 XY정자의 분리성공으로 가축의 암수를 자유롭게 조절할수 있으며 이것으로 우유나 계란등의 양산을 유도, 산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인간의 남녀구분출산도 1백%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리기술이 금방 인간에게 적용되어 남녀출산을 조절하게 되는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연사회속의 남녀비율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려 인류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⑫

역사적 자부심과 신앙이 큰몫

속마음 바닥에는 종교심뿐

나를 지탱한 것

남치사전후 9년5개월간에 걸친 감옥생활, 혹은 가택연금생활중 나를 지탱해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역사와 함께 산다는 생각이었다. 그외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 가족과 친우들,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보내준 지원이었다.

가족·지지자들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에 머물러 밤샘기도를 해주었는지 모른다. 그들 중에는 나와 만난일도 없는이가 많이 있다. 이런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나도 용기백배하곤 했다.

물론 외부세계의 지원도 있었다. 내가 지난달 〈아사히 신문〉을 통해 일본국민들에게 보낸 감사는 조금도 보탠것이 아니다.

정권을 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나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20년후, 50년후에는 틀림없이 내가 이긴다는 자부심이 내게는 있었다.

역사적 안목에서

일본 막부시대 말엽의 사까모도·류우마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무슨 가닭인가!

그는 하나의 야인에 불과하나 누구보다도 앞서 공화주의적인 입장을 주창했다. 훗날 정권을 잡은 가쯔라·다또오나 이도오·히로부미와 비교하여 어느쪽이 위대한가? 어느쪽이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이겼는가?

그것은 너무도 뚜렷한 일이다. 이와같이 대중편에 선 사람은 역사의 마당에서 꼭 이기지만 하느님을 믿는 경우에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때 그때에 하느님의 보답을 받는다.

나는 옥중에서 "하느님이 계시는가?",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 어째서 세상에서 악이 성하는가?"의 두가지 명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내나름의 해답을 얻었다.

나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은 "세상의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정의를 생각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오늘과 같이 확립되기까지는 2천년 걸렸다. 그것을 현재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는 것이 폴랜드문제에 대처하는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이고, 죽음을 감수하고 있는 중남미의 신부들이고, 또한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의 움직임이다.

정권의 차원을넘어

나는 이러한 과거 대통령선거의 경험과 네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온 경험등에 의하여 사람에게는 사람을 좌우하는 큰 운명의 힘이 있어서 자기의 의욕이나 능력만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정권의 차원을 초월한 심경이다. 나의 속마음 바닥에 있는 것은 종교적 판단이다.

다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민의 염원인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그 언제나 4천만 한국민편에 서서 그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리라. 몸은 미국에 있어도 마음은 한국민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회에 끝)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지난 1월15일 워싱턴시내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정치범구출집회」에 참석, (위·샬·오버캄)(승리는 우리것)을 합창하는 김대중씨(우)와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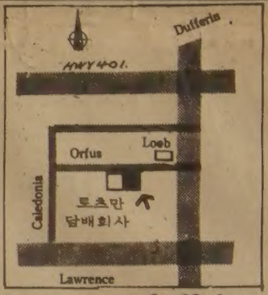
도매상

DOMINION SMALL WARES

화장이전 OPENING 스페샬

CASH & CARRY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February 19 - March 19, 1983

1. BATTERIES

* Eveready

"AA"	(24) 1015 BP	$26.40	(110)
"C"	(24) 1035 BP	19.92	(83)
"D"	(24) 1050 BP	21.60	(90)
9 Volt	(24) 216 BP	18.24	(76)

* Duracell

"AA"	(24) MN 1500-2	43.20	(180)
"C"	(24) MN 1400-2	52.08	(217)
"D"	(24) MN 1300-2	54.48	(227)
9 Volt	(24) MN 1604-1	47.76	(199)

2. LIGHTERS

* Bic Lighters (48s) 33.60 (70)
* Scripto Lighters (48) 35.04 (73)

3. PARKER PENS

* Parker stainless Jotter set	16.50	7.50
* Jotter set	11.50	5.00
* Reg. Jotter BP or boxed	5.00	2.25
* RBI Rolling ball	4.50	2.25
* Parker 50 Matte Brn	25.00	7.00

4. PLANET PLAYING CARDS 16.28 (dz.)

5. PAPER BAGS

Grocery Bags

2 lb	1000	8.75
3 lb	1000	10.09
5 lb	1000	13.15
6 lb	1000	14.05
7 lb	1000	15.19
8 lb	1000	16.25
10 lb	1000	18.19
12 lb	1000	22.50
14 lb	1000	24.50
20 lb	1000	28.89

Carry out sacks

12x7x17	500	23.10
12x7x17	400	22.45

*Notion Bag

5x7	1000	5.59
7x10	1000	9.49
9x12	1000	13.45
11x14	1000	20.39
13x16	1000	24.59

Minimum order 1000

6. TOWELS

* White Swan towels (18x2's) 16.79

7. DRUGS & ETC.

* Colgate toothpaste 100 ml	1.21	1.15
* Palmolive dish-washer soap 500 ml	1.26	1.19
* Head & Shoulders tube, tube 100 ml		2.12 net
150 ml		2.85 net
* Dainty bol Toilet bowl cleaner 12 oz		11.40 dz
* Shoe Polish Kiwi paste		8.64 dz

8. FUSES

15 amp reg fuse	(25/4's)	18.75 box
20 " " "	(50/2's)	45.00 box
25 " " "	(50/2's)	45.00 box
30 " " "	(50/2's)	45.00 box

Minimum order 1 case

9. CONFECTIONARY

* Oh Henry's (Lowney's) Reg. Chocolate bar	36x40¢	9.39
* Rowntree Reg. Chocolate bar	36x40¢	9.49
* Y & S (Hershey) Twizzler @ .5¢ Twizzler (60 ct)		1.59 (c/s)
Red & Black		1.69 box
@ 10¢ Twizzler (48 ct)		2.55 (c/s)
Red & Black		2.69 box
* Peek Freans plain cookies	12x145¢	8.99 (12)
* Cadbury (Neilson) thick bar	36x55	12.99
* Tic Tac	24x35	5.15
* Lifesavers candy	24x30	4.55
* Hershey Choc. bar	36x40	9.49
* NHL Hockey card	48x25	8.19
* Y & S Nibs & twizzlers	24x40	5.90
* Maynard Wine Gum	24x30	3.99
* Callard & Bowsers Roll candy	24x40	5.55
* Dare peg top candy	12x129	8.88 (74)
* Fruitella candy	36x25	5.09
* Mentos mint	24x25	3.39

ALL THE STATIONARY & TOYS
40% + 10% OFF RETAIL

AND MANY MORE

저희 도미니온 스몰웨어는
학용품, 장난감, 쵸코바, 캔디, 껌, 약품, 하드웨어, 선물포장지, 부엌용구, 선물용품, 피써프라이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도매상으로서

항상 친절하게 고객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DELIVERY SERVICE

789-7214 매니저 김 근 래 / 세일즈맨 김 형 철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1면에서 계속〉

교민 실태 조사결과

"교민 정착 성공적이다"

①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0.2살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47.6%로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학력으로는 89%가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피고용인 22.1%, 상업 11.5%, 자유업 15.9%, 기타 46.1%(가정주부및 노인 포함) 등으로 집계되었다.

언어의 경우, 92.4%가 영어를 쓰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63.2%가 불어를 쓰고 말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며, 가정에 일상용어로는 20.5%가 영어를, 4.5%가 불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수입면에서 연간 2만달러이상 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46.3%였으며, 동거세대에 관한 질문에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같이 산다가 27.9%, 2대가 같이 산다가 60.4%, 1대가 같이 산다가 11.7%로 나타났다.

종교는 대부분이 크리스찬으로 가톨릭 37.7%, 신교 47.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얼지역의 한국이민자가 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약 5분의4인 79.7%가 71년 이후 캐나다에 도착했다.

②주 거

도착이후 한번이상 이사를 한 사람이 29.8%로 비교적 주거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있는 일은 주택소유율이 한국에서는 29.4%이던 것이 캐나다에 와서 57.1%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또한 소유주택가격이 6만달러이상인 사람이 42.4%이며, 임대의 경우도 30%가 평균 월 6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침실수가 4개이상인 가정이 35.2%나 되는 것으로 보아 몬트리얼교민의 주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율 57.1%

③이민생활 만족도

생활의 만족도를 볼때 특이한 것은 캐나다 이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2%인 반면에 퀘벡주 이민에 만족은 불과 20.3%에 불과했다.

이외에 가정생활에 만족하다고 말한 사람은 54.2%나 되는 반면에 주택에 만족은 33.1%, 이웃에 만족은 33.3%로 나타났다.

④문제해결 방안

본 조사에서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세대간 갈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70.5%는 상호존중, 66.9%는 상호순응이라고 답변했다.

가정생활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가족스포츠(65.8%), 가족 사회문화활동(65.0%), 한인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5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퀘벡사회에 적응, 혹은 융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퀘벡주민과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한인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69.4%), 문화센타의 이용(82.6%)등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⑤언어 융화

불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1.6%인데 비해 가정에서 불어를 사용한다고 말한 사람은 4.5%에 불과했다.

불어 TV방송인 채널2와 채널10을 자주 본다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6.5%와 4.9%에 불과했다.

기독교인이 융화도 높고
가정의 주화제는 "자녀교육"

⑥사회문화 융화

조사대상자중 15.1%만이 가정에서 퀘벡주의 정치에 대해 자주 토의한다고 응답했다.

퀘벡주의 저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74.2%가 퀘벡수상의 이름을, 75.8%가 퀘벡야당 당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반대로 정치, 사회문화및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가는 매우 저조했다. 정치모임에 자주 참가한다고 답한 사람은 1.7%, 사회문화활동에 자주 참가한다고 답한 사람은 6.7%, 학부모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고 답한 사람은 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선거에 투표참가율은 매우 높아 연방선거 참가율은 68.9%에 달했다.(주선거 참여율 68.3%, 시선거 참여율 41.5%)

⑦가정생활의 화목여부

교회에 다니느냐는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80.6%가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토의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는 무엇이냐에 대해 무려 52.9%가 자녀교육에 관한 토의라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관계(43.8%), 가족의 경제관계(26.3%), 정치문제토의(15.1%), 한국인사회에 대한 토의(7.5%)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보는 인기 TV는 채널6(16.3%)와 채널12(34.1%)로 영어방송이였으며, 불어방송인 채널10은 4.9%에 불과했다.

또한 교포들은 교민사회에 대해 많이 토의하지 않지만(6.5%), 한인사회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⑧조부모의 가정생활 만족도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36.6%로 조부모와 손자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사람(28.8%)보다 높았다.

28.8%는 조부모가 소외되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40%는 이들 조부모들이 적절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것으로 믿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5%는 부모가 조부모의 문제를 이해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0%는 자녀들이 조부모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⑨부모의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도는 56.3%로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만족도 36.6%에 비해 높았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6%, 조부모가 부모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5.7%,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11.6%로 나타났다.

⑩자녀의 가정생활 만족도

부모가 자녀에 간섭하느냐 하는 질문에 14.7%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조부모가 자녀를 간섭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7.5%였다.

이외에 조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3.3%,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56.3%, 조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권위적이다 6.1%, 조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이해못한다 22.3% 등으로 나타났다.

⑪자녀의 일반적인 만족도

자녀의 생활만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직장전망(94.4%), 애정생활(83.3%), 공부(79.7%), 캐나다경제(76.7%), 퀘벡경제(74.0%), 퀘벡정치(59.7%), 부모와의 관계(73.3%), 조부모와의 관계(5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⑫타민족과의 결혼 용납여부

타민족과의 결혼용납여부에 대해 아시아민족사이의 결혼을 용납한다라는 대답이 35.6%로 백인과 아시아민족과의 결혼용납 25.0%, 흑인과 아시아민족과의 결혼용납 5.2%에 비해 높았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金聖鍾작

<167>

이상한 女人 ⑫

열쇠 얘기도중 타월이 흘러내려…

「일이 이렇게되다니 우습군요.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갈데가 없어서 나를 찾아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다 못해 찾아 온 겁니다.」

「나한테 도움을 청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예요.」

그녀가 갑자기 배를잡고 웃는 바람에 그는 어리둥절했다.

「당신같이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끔찍히 죽였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그건…。」

「아무리 밉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가 있지요? 나까지 그렇게 죽일 생각인가요?」

여자의 얼굴은 어느새 굳어있었다.

「아, 아닙니다. 그렇다가…나는 사람을 죽일줄 모릅니다.」

그는 얼결에 그렇게 말해 버렸다.

「반은자와 당신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나요?」

「그,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부인하는 건가요? 무슨 말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체포되면 말입니다.」

여자는 뚫어지게 그를 쏘아보다가 진실을 알아차린 표정을 지었다.

「당신 누이가 그랬군요!」

「지금 그런것을 따져 뭘합니까.」

朴男 그림

그는 절망적인 기분에싸여 말했다.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넘어가야지요. 당신은 운반만 했나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누이한테서 이야기는 들었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동생을 만나지 못했나요?」

「못만났어요.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형사들한테 연행돼갔어요. 내누이한테 무얼 요구했지요?」

「돈 2천만원과 모세의 소지품 일체…。」

두 눈은 그녀를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었으니 이젠 받아내기도 어렵게되었군요. 돈 같은건 아무래도 좋아요. 모세의소지품은 어디 있나요?」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지품중에서 열쇠 같은거 없던가요?」

「있었습니다.」

「어디있죠? 가지고 있나요?」

타월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한쪽 젖가슴이 드러났다. 탐스럽게 생긴 가슴이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적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디다 두었죠?」

「아무도 모르는곳에 두었습니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7
549 BLOOR ST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三國志 561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할렐루야 '83연합대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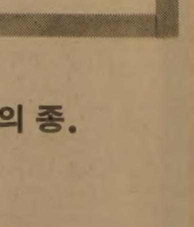
주제: 생동하는 신앙

□ 강사 : 김중기목사

82년도 북미주 교역자 연합수련회 강사.
현재 한국인 신앙계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능력의 종.

강사약력 :
1. 연세대 및 동대학원 졸업(B. TH. TH. M)
2. 하바드대학및 보스톤대학 신학대학원 졸업(ST. M)
3. 맥코믹신학대학원및 노스웨스턴 대학원 졸업(PH. D)
4. 보스톤 한인교회및 미드웨스트장로교회, 호노룰루기독교회 다년간목회
5. 현재 미연합장로교회 목사로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대 상	일 정	요일	시 간	장 소	
성 인	83.2.17~18~19	목금토	오후7시30분	펜티코스탈교회	300 Queen's Dr. Tor.
성 인	83.2.20	일	오후7시30분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청소년	83.2.19	토	오후2시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W. Tor.



□ 주최 : 토론토장로연합회

□ 후원 : 교역자협의회, 교사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 펜티코스탈교회, 한인합창단

올림픽團地 올해着工

國立경기장 290만m^2 87년完工
4개 下水처리장 年次的 건설

全대통령 순시, 서울市보고

서울시는 88년올림픽 개최를위한 올림픽단지조성등 각종건설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江東區芳荑洞국립경기장부지를 중심으로한 올림픽 단지에는 각종경기시설과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공원, 종합관광쇼핑센터등이 들어서며 夢村서울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아시아공원, 호수공원등도 건설된다.

金聖培 서울시장은 8일 全斗煥대통령에게 금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개최를위해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선진수도건설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의하면 올림픽단지안에 체조, 자전거, 탁구, 펜싱등 경기시설과 선수촌, 기자촌등 부대시설을 갖춘 2백90만㎡의 국립경기장을 87년까지 건설하고 공원, 쇼핑센터, 연계도로망등도 84~87년 사이에 모두 완공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한강소생을위한 종합하수처리 시설공사를 금년부터 시작, 87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에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가장많이 흘러나오는 淸溪·中浪川, 炭川, 安養川하구와 蘭芝島에 4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와 폐수를 전량 처리장으로 끌어들이는 53.8㎞의 분류하수관로를 만들며 시내전역의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 대규모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7천4백8억원인데 이 가운데 3천7백93억원은 금년10월부터 징수할 하수도사용료 (연간 4백억원추산)와 시비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한일경협차관등 외자로해결된다.

서울시는 또 한강에 저수로를 파고 고수부지를 공원과 시민체육시설로 개발하며 강변도로를 확장하는것을 골자로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을 85년까지 마무리짓고 汝矣島 뱃섬도 매립, 99만㎡의 토지를 적절히 이용키로 했다.

한편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힘입어 오는 86년까지 4대문안 1백16개지구 55만1천4평을 재개발, 86년에는 도심의 면모를 일신하고 도로율을 18%에서 33%까지 끌어올리며 주차장과 공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漢江개발은 차질없도록
教師 해외視察길 넓혀야

全대통령 지시

◇全대통령이 8일 서울市廳을 순시, 올해市政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8일 『86년의 아시아경기대회를 잘치르면 88년올림픽도 쉽게 치를수있는만큼 아시아 경기대회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해나가야하며 그때까지 서울시가 쾌적하고 명랑한도시가되도록 질서의식을 정착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시청을 순시, 金聖培 서울시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이같이강조하고 『漢江종합개발은 우리민족번영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관계관은 항상 공사의진도를 점검하는등 차질이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首都圈인구疏散을 서울시가 내무, 보사부및 지방관서와 긴밀한 협조를통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주민들에게 생활근거를 마련해주는등 차질이 없도록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지하철공사등 각종공사의 안전사고는 공사를 맡고있는 기업체들의 무관심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공사를 맡은 기업체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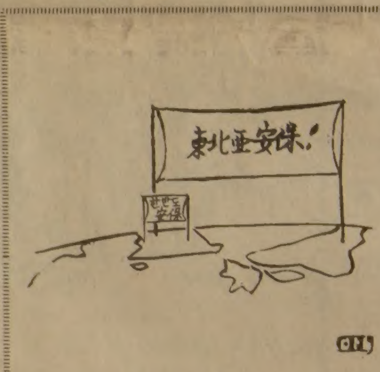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公職者자세에 언급,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신자세가 중요하며 이런 공직자가 선진조국창조의 역군이 될수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책은 展示효과만을 노릴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간 또는 각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천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教權확립에 대해 『教權은 교직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관, 사명감등을 확립할수 있는것』이라고 전제 『교직자들의 眼目을 넓히기위해 예산이 허용하는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외국의 교육제도시찰등 해외 시찰기회를 넓혀야 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행정요원을 채용하는한이있더라도 교사들의 雜務를줄여 교사들이 연구에만 몰두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말하고 『교육을받고도 실천에 옮기지않는데 문제가 있는만큼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받은 것이 실천에옮겨질수있는 풍토가 수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市政보고를 받고 『서울시가 특별보고를 받고 현재지원하고있는 양로원과 고아원등은 복잡한 서울시를 피해 지방으로 옮겨 쾌적한 분위기가될수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社會漫評



달라진 「安保」……

베긴政權 崩壞위기에

査問委、샤론國防등 解任권고

【예루살렘AP聯=聯】 지난해 9월에 발생했던 베이루트교외 팔레스타인 난민촌 大虐殺사건을 조사해온 이스라엘 3人查問委員會는 8일 최종조사보고서를발표,국방상 샤론과 군정보국장 야호수아·사구이소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베긴수상이 공동책임을지고 사임, 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이있다고 관측통들은 전했다.

사문위원회 보고에서도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이에 무관심했던 베긴수상을 비판하고있다.

이보고서는 작년 9월레바논 팔랑헤 민병대는殘留팔레스타인 게릴라의소탕을 위해 이스라엘군대의 도움을 얻어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레바논침공을 주도했던 샤론은 자신이 난민촌진입을 허락했다고 사문위에서 증언했고 그러나 난민촌진입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난민학살사건을 조사해온 이스라엘의 3인查問委는 이날예정을 1주일앞당겨 이같은 보고서를 제출, 베긴수상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주요내용을 발표했는데, 보고서가 레바논침공을 주도한 샤론국방상의 해임을 요구함에따라 베긴수상은 공동책임을지고 사임, 이스라엘 정부가 붕괴될가능성을 제기했다.

베긴수상은 정부가 보고서의 결론에 책임을 져야할 경우 사임할 것임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政府、今明投機억제책 마련
關係長官회의…합동調査결과 점검

정부는 8일하오 경제기획원의실에서 토지투기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투기현장에 파견됐던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투기규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전국의 토지투기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로나누어 파견됐던 3개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취합, 종합보고서를 작성키로했다.

정부는 이보고서를 토대로 금명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레바논서 北傀로키트 발견 베이루트 주둔 다국적평화유지군소속의 이탈리아군인들이 베이루트南部로 가는 해변고속도로근처의 건물옥상에서 발견된 北韓製 카추샤로키트포를 살펴보고있다. 【베이루트 7日AP電=聯合】

美、對韓軍事차관 개선

슐츠 "내년부터 10년据置 20년償還"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관련하여 미국의 對한반도 방위지원에 대해 그결과가 감소되는일은 없을것이라고 한국정부에 약속한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8일 슐츠美국무장관이 일본의 방위증강이 한반도에 있어서 美군사력의 감소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한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위해 우리정부의 고위지도자에게 이같은 약속을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지난6일열린 韓美외상회담에서 우리정부가 시간적인 제약등으로 미처거론치 못했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에대해서 書面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대한 미국측의 입장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슐츠장관은 7일 이들문제에대해 미국의입장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슐츠장관은 또 미국은 美日간의 군사적인 협의를포함한 東北亞지역에관한 모든문제를 한국과도 긴밀히 의논할계획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슐츠장관은 또 미국의 對韓軍事판매차관(FMS)의 조건이 대폭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對韓FMS는 年利10~14%로 3년据置 9년償還조건으로 금년도 導入分이 1억4천만달러인데비해 75년이후 累積된 元利金상환액이금년에 2억5천만달러나 되어 한국군의 장비현대화에 도움이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슐츠장관은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해, 금년도 美행정부가 요청한 對韓FMS 2억1천만달러중 議會에서 삭감된 7천만달러를추가 지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환조건도 ▲금년도분은 5년거치 7년 상환으로 美행정부가 완화시켜주고 ▲84년도분부터는 10년거치 20년상환조건이 되도록 적극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것으로알려졌다.

아베日外相 "한국、유엔단독加入요청안해"

【東京=聯】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郞) 일본외상은 8일 상오 각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유엔단독가입문제는 그렇게 간단한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에 단독유엔가입지지요청을 정식으로 해온일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외상은 이날 일본정부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나 또는 한국의 단독유엔가입을 지지하기로 對유엔정책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일부신문보도에 대해 논평하는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유엔은 거부권행사도 있고해서 한국의 유엔가입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단독加入지지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南北韓동시 유엔가입이 이상적인것이긴하지만 그렇지못할경우 한국만의 단독유엔가입을 지지할 방침을세웠다.

7일 외무성이 중심이되어 마련한 南北韓유엔동시가입문제와 교차승인에대한 일본정부의 최종방침은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해 유엔동시가입이 긍정적인 것으로평가하고 다만경과조치로일본정부는한국의단독유엔가입도기본적으로지지한다』는것이다.

民韓、오늘 全黨大會

柳종재 再選확실

民韓黨은 9일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별관에서 대의원5백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후 2년만에 첫定期全黨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柳致松총재가 다시 총재로 재선출될것이 확실하며 부총재2명과 기타 黨職人選은 총재에게 일임할것으로 보인다.

또 全黨대회의장에는 현재의 金俊燮의장이 다시 선출될것으로 알려졌다.

民韓黨은 이번 全黨대회에서 앞으로 解禁될 정치被규제자의 영입등을위해 黨職을 늘린 黨憲및 정강정책개정안도 채택한다.

이에앞서 民韓黨은 8일하오 中央常委(의장 吳洪錫)를 열고 전당대회에 부의할 黨憲개정안을 심의, ▲대의원수를 「6백명이내」에서 「8백명이내」로 ▲당무회의 선출케이스 중앙상무위원수를 「30人이내」에서 「50人이내」로 늘리고 ▲附則에 在野人士 영입규정을 明文化하며 이들에게 할애할 당무위원수를 5석에서 10석으로, 중앙상무위원수를 20인에서 40명으로 늘리도록했다.

▲중앙상무위원는 85년 全黨대회를 12代총선이후로 소집할수있도록 黨憲개정안도 채택하는 한편 전당대회에서 채택할결의문, 정강정책수정안, 국민에게 보내는메시지등을 확정했다.

국제회의·大會유치 10國이상 事前승인

정부는 각종국제회의나 大會의 국내개최誘致를 신중히 결정키로하고 외국인 50人이상 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등을 유치하려할때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대회 誘致·調整에관한규정」(총리훈令제183호)을 각部處에 시달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地平線

지금 쓰여지고 있는 여러 학술용어 가운데는 전공인사로도 알기가 어려운것이 고고·미술사에 쓰이는 말들이다。그것은 용어자체가 어려운데도 문제는 있었지만 보다 더 일본식표기의 답습이나 기타 구미지역 영어의 번안 또는 우리 토박이말의 혼용에서 오는 혼란이 그용어의 어려움을 증폭시켰다。▼일상쓰이는 말의 경우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학술용어에 있어서는 정확한 개념의 설정과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용어의 선정이 모든것에 선행하는 기초적인 절대조건이다。따라서 명확한 학술용어의 설정없이 올바른 학문의 체계화와 발전은 기대할수가 없다。▼국립중앙박물관 부설 한국고고미술연구소(이사장 崔淳雨)는 76년부터 지난 1월까지 고고·미술사관계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7백24개의 용어를 새로 제정했다고 한다。이번 제정에 있어서는 각전문분야별로 기초작업을 맡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학계의 중진으로 구성된 임원들로하여금 최종확정케 함으로써 신중을 기했다는 얘기다。▼이들 용어는 미구에 책자로 발간되어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되려니와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낱말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언어감각이나 토박이말들에서 벗어난 어휘도 엿보여서 좀더 생각해야할 여지가 남은듯한 인상이다。이와같은 인상은 한문투나 구미등의 외래어투의 선입견을 전제로 한 부자연스런 번역과 번안의 억지에 그 원인이 있는듯 하다。▼이를테면 거여구(車輿具)를 「수레갖춤」이라고 한다든지 순장을 「딸려묻힘」이라고하는 유의 용어는 생경하고 어색하여 마치 비행기를 날틀이라 하고 학교를 배움집으로 하려 했다가 끝내 일반화되지 못했던 전철을 밟게 되는것이나 아닐까 하는 염려를 빚게 한다。그것은 석기제작의 교호박리(交互剝離)와 같은 작업명등에서도 마찬가지다。▼여기서 어색한 용어를 나열할 겨를은 없으나 순수한 우리말을 찾기 위해서 석기관계는 석공들에게, 토기관계는 옹기나 사기를빚는 장인들로부터, 그리고 금속기관계는 금은세공을 하는 세공방이나 대공방 또는 대장간의 늙은 장인들의 자문을 받아보는것도 크게 도움이 될듯하다。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미 사어화했거나 말의 화석으로 퇴화한 우리의 토박이말도 회생될수 있고 그것은 학술용어로도 적절하여 일석이조가될 것이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축발전
〈주간한국 별도발행〉
변호사 강찬영 ■ 의사 최등영

美서 활동 KGB要員 3백50명

타임誌보도 거의 유엔무대서 暗躍

【뉴욕AP·UPI=聯】 미국에는 최소한 3백50명의 소련비밀경찰(KGB)첩보원들이 활동중이며 이들의 활동무대는 대부분 뉴욕의 유엔본부라고 美시사주지 타임誌 최신호가 보도했다.

타임誌는 美연방수사국(FBI) 대변인의 말을 인용, KGB가 미국내에서의 첩보활동을 강화하고있으며 美정부및 과학·실업계내에서 첩보요원을 포섭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美방첩기관소식통들을 인용, 전세계의 소련외교관중 적어도 3분의1이 KGB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영국의 소련문제전문가 레너드·샤피로씨의 말을 인용, 전세계에는 약 70만명의 소련첩보원과 같은수의 정보제공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비해 미국의 정보요원수는 13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임지는 소련공산당 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가 지난 82년까지 15년동안 KGB의 장직을 맡고있을때 소련첩보활동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타임지는 그동안 KGB가 특히 고도기술첩보획득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그 예로 지난3월 컴퓨터의 마이크로회로를 구성하는 이른바 2대의 마이크로칩라인이 합법적으로 수출된 사실을 들었다.

레바논平和협상 再開

베이루트東쪽선 전투치열

【할데(레바논)AP·UPI=聯】 레바논·이스라엘·미국협상대표들은 7일 베이루트동쪽 이스라엘점령산악지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의 할데에서 제13차 철군회담을 재개했다.

회담소식통들은 레바논의 안토이네·파탈 수석대표가 15분간의 개막연설에서 점령지 민간인지위에 관한 제네바 및 헤이그협정을 들어 레바논측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말하고 논기독교및 회교도간의 전투를 막지못한 이스라엘측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날 철군회담이 열린 할데의 레바논 비치호텔쪽에서 두발의 카투사로키트가 발사됐으나 호텔건물에는 떨어지지 않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이탈리아軍 대변인은 로키트가 베이루트시 남쪽입구인 우라이지역에서 발사됐다고 밝히고 군병력이 즉각 로키트발사대를 포위, 원격조종되고있는 개와 아직 발사되지 않은 2발의 로키트포탄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에 3者개입말라" 경고

라프산자니 이란 국회의장이 6일밤 개시된 對이라크攻勢에 언급, 이란軍이 兩國戰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발표하면서 이지역의다른 국가들, 특히 남부지역국가들에게 더이상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있다. 【테헤란7일AP=聯】

蘇 해군主力 太平洋에

印度洋主力도 빼… 캄란灣 戰力증강

【메낭(말레이지아)AP=聯】 소련은 지난4년만에 처음으로 인도양지역에 주력전투함정을 한척도 배치하지않음으로써 해상전력의 초점을 인도양에서 태평양쪽으로 옮기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의 캄란만을 기지로 이용하고있는 소련의 해군력이 작년의 2배로 증강됐다고 美해군정보소식통들이 7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들은 소련이 지난81년이래 해군력의 초점을 인도양에서 태평양쪽으로 돌리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련이 현재 인도양해역에 4년만에 처음으로 주력전투함을 1척도 배치하지않고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수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식통들은 소련이 과거 美軍기지였으며 南支那해상의 전략요충인 캄란기지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고 이기지의 소련군사력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날 말레이지아 페낭항에 입항한 美7함대旗艦 블루·리지號의 船上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印度洋군사력減縮 실패면

蘇, 군비증강 적절한 조치

【유엔본부UPI=聯】 소련대표 레프·멘델레비치는 7일 인도양에서의 군사력증강을 감축하기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않을경우 이같은 군비증강에 대처키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련대표는 유엔 인도양위원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미국이 인도양의 평화지역 방안을 모색키위해 오는 84년 국제회의를 열려는 그들의 노력에 방해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비난했다.

데이비드·애덤스 미대표는 그러나 그같은 국제회의는 소련이 인도양지역을 점차 불안정하게 만들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현단계에서의 국제회의의 개최는 오류이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니까이도 18일訪中

나까소네訪韓 설명

【東京聯】 니까이도·스스무(二階堂進)日自民黨간사장은 오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나까소네수상의 특사로 中共을방문한다고 7일 발표되었다.

정부발표는 니까이도 간사장이 趙紫陽수상을포함한 中共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나까소네수상의 한국및 미국방문결과와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할것이라고 말했다.

日의 自衛權 논쟁

與"「美艦호위」는 개별적自衛" 野"集團자위로 헌법에 위배"

일본의 예산국회는 專守방위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어디까지 美함정을 호위하는 것이 自衛權에 속하는가를 에워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볼때 자기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대해 상호호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의 평화헌법체제에서는 일본을 방위해주는 미국함정에 대해서도 일본의 자위대가 호위하는 것은 집단적인 방위로서 금지되고 있다.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은 지난 4일과 5일에 열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일본을 지키기위해 항해중인 美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것은 개별적인 자위에 속한다고 언명, 자위권의 한계에 관해 여·야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노(矢野)公明黨서기장은 美함정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해상자위대함정이 작전을 수행하는것은 개별적인 자위에 속하는것이아니라 집단적인 자위에 속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평화헌법에 명시된 專守방위의 한계를 분명히 할것을 요구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일본의 領空과 영해및 열도에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美日이 공동작전을 수행하고있는 美함정이 무력공격을 받았을때 구출작전을 하는것은 개별적인 자위권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지난80년에는 衆議院예산심의회에서 「공해상에서 일본의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본이 美함정을 지킬 책임은 없다」[illegible]

[illegible]

【東京=宋孝彬특파원】

社說

交叉承認과 單獨加入

—韓半島平和정착 새方案의 浮上

역사적으로나 地政學的으로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관련된 문제는 周邊 강대국들의 착잡한 利害관계 때문에 세계적 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日本은 자주「一衣帶水之間」을 거론했고 한편 中國은 거듭「脣齒관계」를 지적해 왔다. 오늘날에는 國際관계 構造가 흔히「軍事的 兩極化, 政治的 多元化」로 풀이되는 가운데 美·蘇가 더욱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슐츠美國務長官의 東北亞3국 巡訪에 즈음하여 이 地域勢力均衡의 結節點이라고 볼수있는 韓半島의 平和體制에 관한 문제제기가 다시 부각되고 또는 새 모색 방향을 강력케한 사태진행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그는 2박3일간의 公式訪韓을 마치고 8일상오 金浦공항을 떠났다. 방문기간중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를 예방하여 요담했고 李範錫외무장관과는 장시간의 외상회담을 가졌으며 前方部隊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訪韓成果로는 修交 제2世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韓·美간의 同伴者的 盟邦관계를 국제적으로 과시하였고 특히 美國의 對韓방위공약을 대내외적으로 再確認했다는 점을 들수있다. 全대통령의 持論인 太平洋연안국頂上會談구상에 대해서도 원칙적 지지를 표명했다는것이다.

다만 韓國에서 생산된 美免許防産品의 제3국 수출문제, 對韓軍事販賣借款(FMS)의 증액과 상환조건의 점진적 개선문제같은 현안은 앞으로의 계속협의로 상호補完的協力을 증명할수있게 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나아가서 그의 訪韓과함께 최근 유난히 부각된 南北韓交叉承認문제에 대하여 슐츠長官은 離韓記者會見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駐韓美軍 철수계획은 있을수 없으며 그럴계획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同席한 李장관은 交叉承認문제를 양국이「앞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키로 합의했음을 부언했다.

때를 같이하여 東京으로부터의 보도는 日本정부가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이 北韓측 거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우선 韓國만의 單獨加入을 지지,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를 위해 中·蘇가 반대하지 않도록 說得작업을 벌이게 되리란 것이다. 한편 交叉承認문제는 4국合意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日中共에 의한 交叉承認을 추진해볼 방침이라고도 한다.

어느경우건「北韓의 벽」때문에 좀처럼 實現性이 내다보이는것 같지 않다. 하나 國際情勢란 固定不變한것이 아닌만큼 明暗得失에 걸친 問題整理와 더불어 신중히 검토해볼만한 지속적 관심사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우선 韓國의 유엔 單獨加入추진은 그 세계평화기구에서의 民族利益 대변의 當爲性으로보나, 긴장완화에의 기여와 유엔의 普遍性原則에 비추어 볼 적에 너무나 당연한 良識의 要請이다. 北韓측이 云謂하는「分裂고착화」등 반대는 他意있는 일방적 편견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交叉承認문제 또한 韓半島의 平和體制구축을 위한 기본 要請임이 명백하다. 우리가 바라는것이 平和統一인 이상 이에 先行하여 同族相殘과 그 國際戰爭化를 방지하는 기틀은 반드시 마련되어야하는 것이다. 平和를 보장하기위한 國際協力은 결코「干涉」등과 혼동될바 아니다.

하기야 北韓측의 반대 고집으로 미루어 가까운 장래에 交叉承認이 햇볕 볼 날이 보리라고는 거의 상정되지 않는다. 그같은 與件속에 일부 友邦人士들이「추진」「타진」등 명목으로 對北접촉 확대를 합리화하려 할적에는 소득없는 副生作用만 초래될는지 모른다.

韓半島의 平和수호를 위한 寄與度에 어울리지않는 영향력의 증대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北韓측이 南北對話에까지 駐韓美軍철수를 선행조건인양 강조하는 실정에 비추어 그들의 동태에 대한 경각심은 간단히 해이될바 아니라고 믿는다.

모든 경우에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란 상대가 존재하는만큼 좀처럼 희망적 낙관론에만 치우칠수는 없다. 利害得失의 다방면적계측에 보태서 慮外의事態發生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엔加入과 특히 交叉承認문제에 걸쳐 폭넓은 知慧集中과 情報分析이 국내외적으로 협의, 진행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車보다 사람爲主로

—대도시交通의 새與件과 그秩序

「팔자타령」밖에 할수 없었던 우리의 대도시 교통문제에 내년말이면 하나의 전환점이 다가 서게 된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2·3·4호선이 완공되어 아마도 교통인구의 30%이상을 떠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환점이 다가서기 전에 대도시의 발등에는 끄고 넘어가야될 불똥이 떨어지고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공사때문에 도심이 자동차로 꽉차있는 상태가 된지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승용차가 부쩍 늘고있다. 오랜 불경기끝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기때문이다.

지난해 11월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승용차는 재작년에 비해 39.3%가 더 팔렸고, 서울시에 새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벌써 10월말에 재작년 1년동안보다 14%를 앞질렀다.

게다가 기름값이 내려 승용차에 대한 수요증가 무드에 부채질을 할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가용 승용차 뿐만아니라 영업용 택시에서도 두드러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당국은 이미 합승을 금지할 때 영업용택시를 증차했었다. 이번에 다시 LP가스값이 내린데 따른 요금인하는 그만큼 택시에대한 수요를 밀어올릴것이다. 그것이 택시의 증차를 가져올만큼의 압력이 될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든 도심에 몰릴 승용차의 홍수는 이래저래 가속적으로 늘어날것이 확실하다.

한걸음 나아가 당국은 값싼 대중차를 개발할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대도시 교통정책은 이러한 자동차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될것은 확실하다. 아마도 서울에 지하철2·3·4호선이 뚫리는 2년뒤가 그러한 정책적환경의 전환점이 될것이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대도시 교통을 어떤 선으로 맞춰가야될지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해야될것은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당국은 84년말부터 시내버스의 도심권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하철을 타라는 생각에서나 온 제안일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지하철망이 교통인구를 1백% 소화할 수 있을만큼 완성되지않고는 획일적으로 강요할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

4개노선의 지하철이 완공되면 시내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것은 확실하나 [illegible]

거꾸로 승용차 홍수가 밀어닥칠때에 대비해서 도심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전용 차선」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된다.

자동차는 땅위를 달리고, 사람은 땅밑이나 구름다리를 오르내리게 하는 교통시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뜯어고쳐야된다. 사람과 자동차가 마주쳤을때 양보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어야한다는 식의 顚倒된 감각에서 벗어나야된다.

치안당국은「도시질서확립 방안」을 마련, 강력한 교통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한다(한국일보 8일자 11면보도). 자동차를 모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 모두에게 대도시의 새로운 생활환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또한번 강조하는 운동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우리의 대도시 교통문제가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데 대한 인식도 강조돼야한다. 단거리경주를 해야되는 버스정류장, 불편한 구름다리와 전봇대, 무계획한 가로건설이 빚은 병목현상등이 그런 예다.

대도시에 산다고 무작정 현대인이 되는것은 아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의 새로운 고빗길을 앞두고 시민과 당국이 다같이 새로운여건에 맞는 교통질서와 교통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

記者의 눈

民韓黨의 門戶개방

民韓黨은 7일의 당무회의에서 解禁에 대비, 在野인사에 대한「迎入채비」의 일환으로 현행 黨憲을 크게 손질했다.

그 내용은 黨憲에 선언적으로 규정했던 在野정당과의 통합에 대비한 조항에「在野인사의 迎入」의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illegible] 조항을 삽입시킴으로써 [illegible] 1석, 당무위원 35석중 10석으로 늘리고 중앙상무위원도 20석에서 40석으로 증원했다.

더구나 당무위원수를 倍增시키기로 한것은 당무회의가 당내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在野에대해 豫想밖(?)의 배려를 한 것이다.

이 解禁者 迎入을 위한 어려한 門戶개방조치는 그들이 풀려나는 날 한 솥밥을 차리겠다」는 지난번 柳致松총재의 光州 연두기자 회견을 어느정도나마 실체화시켰다는 評을 받고있다.

실상 民韓黨은 이번 당헌개정으로 부총재 3석중 1석, 당무위원 35석중 10석, 중앙상무위원 1백96석중 40석을 대충 在野에 할애한셈이 됐다.

[illegible] 보기에 따라서는 3분의1밖에 안되느냐는 반론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지극히 폐쇄적인 보수야당의 屬性으로 미루어볼때 이례적 배려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듯 싶다.

이렇듯 民韓黨이 자기몫의 3분의1을 할애하게된 데에는 지금껏 정통야당의 宗家를 자처해왔다는 정치명분적 측면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창당이래 在野제1의 정치이슈로 제기해왔다는 정치 도의적 입장에서도 피할수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黨內外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명분보다는 현실적인「한솥밥의 논리」라 할수있다.

이를 강조하는것은 지난날 흐름에 편승한 야당의 통합이 종국에는 [illegible] 野圈의 분열을 가져온 쓰라린 기억이 연상되기 때문인듯 싶다.

柳致松총재도『在野迎入은 흡수 통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白紙상태에서의 통합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illegible] 강조한것도 이러한 脈絡으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한마디로 僞야당으로의 回歸가 아니라 지난 2년간 뿌리를내린 民韓黨에 接木하는 방법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으로 줄이된다.

9일은 民韓黨이 창당이래 처음으로 맞는전당대회이다. 野圈의 분열은 불신을 잉태하고 불신은 당국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어제의 기억을 교훈삼아야할 것이다.

【李成俊정치부차장대우】

日本 中日新聞사장 本社 張회장 禮訪

◇張康在 한국일보회장과 환담을 나누고있는 가또사장.

文化財 전시관계협의를 위해 來韓한 日本中日新聞 가또(加藤巳一郎)사장이 8일하오 업무제휴를 하고있는 한국일보사로 張康在회장을 예방, 환담했다.

新聞 編輯人協會 새任員陣을 구성

韓國新聞編輯人協會는 8일 새任員陣의 構成을 다음과 같이 發表했다.

▲會長 李禹世(서울신문理事대우·主筆)▲副會長 宋庸植(聯合通信 編輯局長) 沈相基(中央日報理事대우·編輯局長) 安德煥(大邱每日 常務理事)▲運營委員長 曺斗欽(한국일보 編輯局長)▲報道自由委員長 曺秉喆(朝鮮日報副局長)▲審査委員長 孫光植(京鄕新聞 編輯局長대리)▲國際委員長 鄭銘碩(東亞日報論說委員)▲監事 曺淳煥(한국일보 論說委員) 李光碩(慶南新聞論說主幹兼 製作總局長)▲事務局長 金千秀

人事異動

民正黨 ▲총무국장겸임 金裕祥(정책국장) ▲총무국대기 金亨基(총무국장)(7日字)

農水產部 ▲種子供給所長 金寅秀(승진)▲大關嶺支所長(職代) 洪鍾基 〃安東支所長(〃)

本社來訪

▲朴肯植씨(韓國動力資源硏究所長) ▲金英圭씨(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무총장) ▲李壽奎씨(香港上海銀行서울代表事務所長) ▲宋榮楨씨(民衆書館會長) 新任인사차

政局往來

"소비자물가 4·8%로 잡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것"

◆외국인맞으려면음식점깨끗해야

全斗煥대통령은 8일낮 서울市政보고가 끝난뒤 시청직원의 식당에서 각계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작년의 경우 經濟전문가들까지 물가 상승률을 14%로 보았고 기적이 이루어져야 10%가 될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비자 물가를 4·8%로 잡은것은 기적에 가까운것」이라고 강조.

全대통령은「우리가 이같이 경이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한것은 전국민이 합심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치하하면서「이는 경제수치들이 론적으로는 도저히 풀어 낼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아시아 경기대회와 올림픽등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찾을수 있는 서울시가 되기위해서는 치안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이 깨끗하고 택시운전사가 친절하며 특히 버스가 駐停車 질서를 준수하는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이 함께 경주돼야 한다」면서「이자리에 참석한 각종 協會長들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

◆民正, 改編대회 決算작업에 착수

民正黨은 지난달20일부터 시작한 지구당 개편대회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의 결과를 決算한 종합報告書작성작업에 착수.

한관계자는 8일「개편대회가 한창이던 이달초에 개편대회 중간결산을 고위층에 보고한것으로 알고있다」며「조직국에서 작성할 보고서에는 개편대회의 총체적인 평가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및 앞으로의 방향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케될것」이라고 설명.

權翊鉉사무총장은 이날「처음 며칠동안은 개편대회 모습이 어색한 감도 많았지만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지시한후부터 눈에 띄게 진전된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의 대회진행절차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지구당실정에맞는 개편대회 절차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全黨대회선 새로운 創黨정신다짐

創黨후 1년이 지나「지각구성」된 民韓黨 중앙상무위는 全黨대회 전날인 8일하오 첫 회의를 열고 全黨대회에 부의할 黨憲개정안등 案件을 확정.

이날 회의는 당무회의가 마련한 黨憲개정내용과 결의문등 附議案件에 대한 별다른 異議없이 1시간30분만에 一瀉千里로 끝났다.

이날 柳致松총재는 치사를 통해「내일있을 全黨대회는 定期대회가 아닌 새로운 創黨의 정신으로 목표성취를 다짐해야할 대회」라며「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평화적 정권교체의 토대를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자」고 강조.

한편 吳洪錫중앙상무위의장은 개회사에서「정부시책을 공격하고 代案이나 마련하는 圖式的야당으로 安住하지말고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受權태세 구축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力說했다.

◆前夜祭갖는등 全黨대회무드 高潮

民韓黨에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8일의 현수막이 10층당사 정면과 측면에 나부끼는속에 대의원들이 續續 上京, 대회무드가 高潮.

이날 전국 76개 지구당의 대의원들은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 위원장의 신임장을 발급받아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대의원증을 발급받았다.

民韓黨은 대의원들의 旅費로 1개지구당에 위원장 10만원, 대의원 4명에 5천원씩 모두 30만원씩 지급했다.

이날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을 위한 大會前夜祭 리셉션에서 柳致松총재는『여러분의 값진 노고는 이나라에 민주주의토대구축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致賀.

한편 民韓黨은 전국지구당에서 79명, 중앙당의 21명등 모두 1백명의 당원을 선정, 전당대회에서 표창하기로했으며 대회장에서 피키트등을 쓰지 않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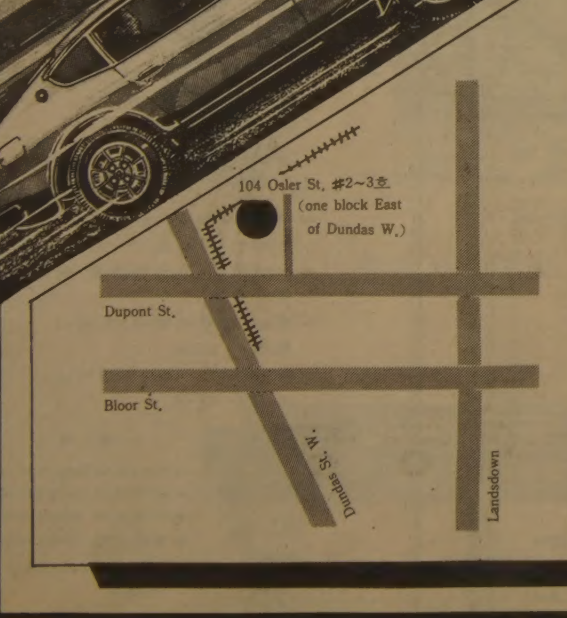
◆常識線의 人事하려니 시간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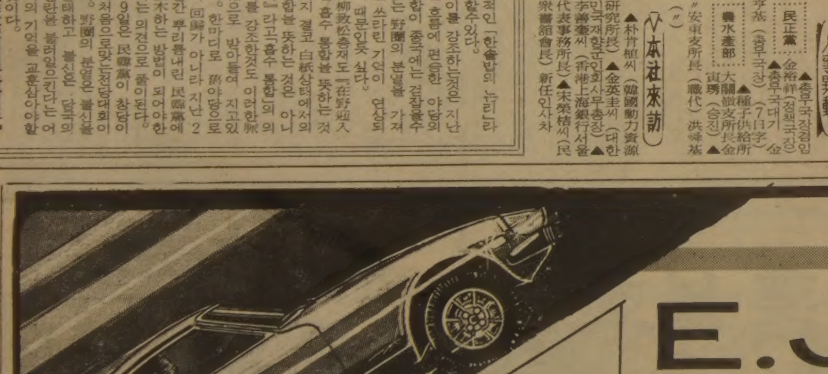
黨職개편을 앞둔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지난5일 측근조차모르게 溫陽으로 잠적했다.

7일하오에 歸京한뒤 8일에는 일체 외부접촉을 사양한채 弘濟洞자택에서 杜門不出.

金총재는 이날하오 자택을 찾은 기자에게『黨職개편작업은 계속 구상중이며 아무도 당분간은 만나고싶지않다』면서『常識線의 人事를 하려니까 시간이걸리는것 아니냐』고 말할뿐 발표일자에 관해서도 계속 緘口.

金총재의 이같은「人事難産」示唆에도 불구, 黨內 일각에선 우선 3役人選에 있어 金鍾河·趙炳鳳·金永光·李聖秀의원중에서 대체로 총무·사무총장·정책위의장중 일부를 맡지 않겠느냐는 추측과 함께 국회주변에서는 李東鎭총무의 留任說이 강력히 대두.





E.J. AUTO BODY 확장이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께 만복이 같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Lisbon 오토바디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금번 제가 새로 확장이전해서 E.J. Auto Body shop를 open하게 되였읍니다.
과거와 같이 배전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영 두 올림.

□ 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수리중 New Car 를 무료대여.

104 Osler St. #2—3호 (B)766—3122 (R)439—6548

내리는 經濟

大轉換期로 접어들었다 <1>

自律化 바람속 「低」字시대 開幕

급변하는 환경

문어발 財閥등 체중減量 탈바꿈

輸出되조… 內需産業이 성장主導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있다. 경제질서, 경제구조, 경제체질이 빠른 속도로 개편되고 있다. 그보다도 경제정책은 더욱 숨가쁘게 전환하고있다. 바야흐로 한국경제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朴炳潤기자】

美서본 슐츠巡訪결산

東北亞 현장서 緊張해소 架橋

◇홍콩에 도착하는 슐츠美國務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이 8일 아시아3國순방을 마치고 부인과함께 홍콩에 도착하고있다. 슐츠장관은 2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美공관장회의를 주재한다. 【홍콩8日UPI特約=聯合】

美-中 高位군사교류 큰 성과

韓-美결속 뚜렷이… FMS상환조건 개선도

【워싱턴=李文熙특파원】

海外토픽

닉슨, 앵커맨으로

★세계지도자들과 對談

10년간 輪禍2倍로

★韓·泰등 亞洲開途國

◇침팬지의 나들이 美國마이애미 메트로동물원의 새끼 침팬지 2마리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들이하는 모습. 각각 빈티와 애비라는 이들 이 침팬지새끼들중 한마리는 어미배에 매달리고있다. 【마이애미7日AP特約=聯合】

美서 出産희망늘어

★臺灣人, 영주권얻으려

메아리

肉筆

文人肉筆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려 어제로 끝났다. 주로 현역 작가들이 친필로 새로쓴 간단한 작품들을 진열한 것이었다. 활자로만 대하던 작가들을 육필로 만난다는것은 정말 작가의 손목이라도 잡아보듯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하는 일이다. 활자가 가진 차가운 隔意같은것을 뛰어넘어 육필에서는 숨소리가 들린다. 글씨에는 情이 있다. 목소리가 있다.

늘 작품으로 대하는 문인들의 육필을 한데모아 전시한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시회에는 李秉岐, 辛夕汀등 작고 문인들의 원고도 더러 나와있었다. 이왕이면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싶었는데 주최측 말로는 遺筆을 모으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李光洙의 「사랑」이나 金東仁의 「감자」의 한원고만 친필의 원고로 대할수 있었다면 얼마나 반가왔을까.

옛날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작가들의 원고는 출판사로 넘어가면 돌아오지않는다. 採字를 하고난뒤 그냥 버리기가 일쑤다. 肉筆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다.

세계적 작가들을 낳은 歐美에서는 웬만한 작가는 대개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에는 그 작가의 육필원고와 편지들이 반드시 진열되어 있다.

가령 알렉산드르·뒤마의 고향인 프랑스의 빌레르·코트레마을에 가면 뒤마기념관에서 1백40년전에 쓴 「몽테크리스토백작」의 원고를 볼수있다. 시력에 좋다고 뒤마는 항상 파란색 종이에 글을 썼는데 그 종이가 하얗게 빛바래진채 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하이네기념관에는 「로렐라이」의 친필이 있다. 어떤 사람의 청에 하이네가 써준 것이다.

발레리가 태어난 南佛의 세트港에는 역시 시인의 기념관이 있고 여기 「海邊의묘지」 草稿가 보인다. 처음에 펜으로 쓴 원고를 연필로 고치고 또 고치고 한 자국이 생생하다. 「작가노트」등 발레리의 방대한양의 원고들은 시인이 죽은 후 가족들에 의해 파리의 독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반드시 기념관이 아니더라도, 런던의 大英박물관을 찾아가게 되면 영국 시인 토머스·그레이의 名詩 「哀歌」의 원본이 마그나·카르타와 나란히 유리진열장 속에 모셔져 있는것을 발견할 것이다.

페트라르카의 시집 「칸초니에레」의 원본은 바티칸의 교황청 도서관에 가있다.

또 반드시 원고뿐이아니다. 南佛퐁비에이유 마을의 「알퐁스·도데의 風車」에는 도데가 손수 고친 校正刷까지 보존되어 있는가하면 보르도의 시립도서관에는 몽테뉴가 「隨想錄」의 初版本을 놓고 자꾸 손질하여 1천4백군데나 고친 手澤本을 보관중이다.

西歐는 이제 打字機의 시대라 打字된 원고가 무슨 가치랴 싶겠지만, 미국 아틀랜타市에 가면 시립도서관에서 미첼여사가 쓰던 타자기와 함께 「바람과함께 사라지다」의 타이핑한 원고를 보게된다.

영국 옥스퍼드의 보들리언 도서관은 유명 작가들의 육필을 많이 모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는 詩 「西風賦」가 포함된 셸리의 노트들이 자랑스럽다.

작가·시인의 자료를 한데 모은 곳으로 가장 규모가 큰것은 독일의 마르바하에 있는 독일문학기록보관소다. 실러의 고향인 이 小村에는 실러기념관에 병설하여 이 보관소를 세웠고 현재 헤세, 릴케등 독일 문인의 작품 4백50편의 원고가 완본 또는 부분으로 간직되어 있다. 소장한 문인들의 편지만 해도 괴테, 헤겔의 것등 모두 15만통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문인들의 육필에 너무 무관심해왔다. 문학사에 남을 名作의 원고지 한장은 엔자에 끼워진 어느 名畵나 名筆보다 가치가 덜할것없다. 작가의 편지 한통에서는 육필로서의 가치 외에도 그의 전작품의 열쇠를 찾을수도 있다. 적어도 그런 가치로 후세를 위해 문인의 육필을 간수해주는 땅이라야 큰 문학이 자란다.

金聖佑 <編輯委員>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제1회 심령대부흥성회

강사 이 상 훈 목사
(휴스톤서울침례교회)

주제 : 그리스도안에 새사람

부흥성회 일정표
● 2월25일(금) 밤 7시30분
하나님의 말씀(시편19:7－11)
● 2월26일(토) 새벽 6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빌4:7－8)
● 2월26일(토) 낮11시30분
기도는 표적과 기사를(행4:25－31)
● 2월26일(토) 밤 7시30분
다른 보혜사(요한복음14:16)
● 2월27일(일) 오후 2시
믿음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9:27－31)
● 2월27일(일) 밤 7시30분
성령충만(에베소5:18)

〈교회위치 약도〉 Jane St. Keele St. Hwy 401 에덴교회 Lawrence Ave. Eglinton Ave. Weston Rd.

주소 : 1272 Weston Rd. Toronto
☎ : (교회) 242－4964 (목사관) 665－2866
에덴침례교회 담임목사 정 태 진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庶民울린 "사기꾼" 28명拘束

악질犯 2명立件

얄팍한 法지식악용 法網피해와

大檢은 8일 법률지식이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해오면서도 법이론을 악용,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朴贊浩씨(47·한약건재상·서울城東區龍踏洞85의1)등 악질사기범 2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상습적으로 어음사기·부동산사기·대리점사기·차용금사기등을해 여러차례 검찰등 각급 수사기관에 피소되면서도 개별사건만으로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조건위반에 불과해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리돼왔고 피해자들만 골탕을 먹어왔다.

또 이들은 범죄과정에 유령인물이나 제3자를 개입시켜 범행을 부인, 수사기관이 범의(犯意)입증이 곤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되거나 불리한 경우 그대로 달아나 기소중지로 처리되는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구속된 朴씨의 경우 지난80년 8월부터 81년 4월사이에 서울道峰區孔陵洞644의53 朴순규씨등 10명으로부터 시가 1천4백50만원~3천4백만원상당의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뒤 1백~3백만원의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겠으니 보증인이 돼 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란이 백지로 된 은행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명날인을 받아 한건당1천만~3천5백만원씩 모두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朴씨가 대출금을 갚지않자 은행측이 이들피해자들의 주택을 경매처분, 피해자들은집을 날리게됐고 전세입주자들도 모두 8천2백30만원의 보증금을 받을길이 없게됐다는 것.

구속된 李青宰씨(34·상업·서울東大門區[illegible]1洞184의39)는 지난81년 2월부터 12월사이에 강원 原州市開運洞에 세원종합상사라는 생필품대리점을 차려놓고 原州市학성1洞 이기자씨의 시가2천1백만원상당의 주택을 매입하기로하고 계약금 5백50만원을 준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리해주면 한달뒤에잔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주택을 주식회사 럭키에물품담보조로 3천5백만원에 근저당을 설정, 상품을 외상으로 빼내팔아 1천5백50만원을 챙기는등 모두 4명으로부터 같은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주식회사럭키·남양산업·남양유업등대기업에 담보로 제공, 모두 2천6백50만원을 사기했다.

이들 상습사기범들은 그동안 최고 20차례나 각급 수사기관에 피소됐으나 무혐의또는 기소중지처분을받아 사기행각을 계속해왔는데 李青宰씨의 경우 지난 77년11월 부터 지난해 11월사이 서울지검·남부·북부지청등에 20차례나 피소됐으나 대부분무혐의 처분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지난해말 이들의여러차례에 걸친 동일·유사한 유형의 개별범죄행위가 범죄지및 피해자가 다른데다 개별적으로는 범죄발생시기가 달라 각급수사기관이 이들상습사기범들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못하는 사례가 많다고보고 78년1월이후 동일피의자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사기·배임·기타죄명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중지 처리된 사건을 종합검토,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도록 지시했었다.

구속된 사람과 사기범죄유형및 피해액 피소회수는 다음과같다.

▲朴贊浩▲李青宰▲崔靈花(39·보험회사원)=차용금사기5회, 3천9백30만원▲崔相先(59·무직)=″5회, 4천65만원▲金光浩(42·운전사)=부동산사기등5회, 1백80만원▲朴容敎(44·무직)=대출금사기10회, 2천9백20만원▲鄭玉圭(44·무직)=계사기1회, 1천1백20만원▲李淑子(46·여·음식점경영)=차용금사기6회, 2백10만원▲金喆(36·무직)=부동산사기5회, 1억7천만원▲文學一(40·무직)=업무방해2백39회, 2백35만원▲裵成禮(52·무직)=차용금사기1회, 1천9백10만원▲玉昌鎬(31·건축업)=공사하청보증금사기3회, 6백만원▲吳成子(40·여·식품제조업)=계사기4회, 2천3백49만원▲金容基(47·무직)=물품대금사기등17회, 8천3백만원▲李英熙(45·무직)=공사하청보증금사기4회, 1천6백만원▲李相億(46·무직)=1회, ″▲表泰吉(37·무직)=부동산사기3회, 1억2천만원▲金基運(40·무직)=부동산사기2회, 1천3백만원▲劉在壽(52·무직)=부동산사기5회, 6천만원▲金南浩(34·건축업)=공사하청보증금사기5회, 2백50만원▲全孝吉(41·무직)=전세보증금사기4회, 3천3백만원▲裵信圭(39·회사원)=차용금사기6회, 1천4백만원▲愼滴權(39·무직)=″2회, 1백93만원▲田炳完(43·무직)=대출금사기3회, 9백만원▲李相培(37·무직)=부동산사기3회, 1천만원▲朴義緖(46·무직)=동업사기6회, 1천28만원▲樹龍奇(49·무직)=물품대금사기4회, 56만원▲李采玉(40·무직)=계사기3회, 1천만원

극장·公園·사우나탕등 구내매점 暴利 심하다

음료수값 市中의 2배

장사잘돼 프리미엄도 엄청나

극장이나 공원, 사우나에 있는 구내매점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들업소들은 간단한 음료나 과자류, 음식등을 팔면서 종류에따라 시중가보다 최고 2배까지 받고있는 실정.

이같은 폭리는 업소별로가격표시를 자율화한데다 시민들이 일단입장하면 나갈수없는 사정을 악용하는것이다.

가장 심한곳이 극장. 서울의 경우 모두 76개의 크고 작은 극장이 있는데 매점대부분이 1백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백원에 팔거나 시중에선 보기도 힘든 조잡한 과자류를 비싼값에 팔고있다.

·또 가격표시를 할수없는오징어는 1마리에 2천원을받기도하며 자동판매기의 코피가 2백원, 깡통사이다가 4백원선.

사우나탕 구내식당은 더욱심해 냉면, 미역국백반이 2천7백원이며 사이다 콜라등 음료는 1컵에 8백80원으로 시중의2배를 웃돌고있다.

지난 일요일하오 서울시내 모극장을찾던 崔成元씨(25·회사원·경기金浦郡桂陽面 朴村里166 신도연립다동 101호)는 『극장매점의값이 너무비싸다』고 불평하면서 『여자친구와함께가면 안살수도 없고 난감하다』고말했다.

어린이를 데리고간어머니들은 더욱 난처해 졸리다못해 2배비싼 아이스크림등을 할수없이사는 경우가많다.

또 昌慶苑이나 서울南山등지의 공원에서도 물건을 비싸게 팔고있다.

昌慶苑의 경우 문화재관리국에서 구내매점을 입찰하는데 장사가 잘돼 프리미엄이 붙는가하면 입찰때 경쟁자를 1천여만원으로 매수했다가 경찰에 구속될정도로 상인들간에 인기가 있다.

업주측이 악용하고있는 가격표시제는 당초 업소간의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값싸고 좋은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마련한 조치이지만 극장등 공간적으로 한정된업소에서 이를 악용, 횡포를일삼고 있는것.

지난73년5월 제정된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은 당초 공장도가격과 소매가표시대상 품목을 각각지정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업소별 가격표시제로 그방법을 전면개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업소별가격 표시제를 실시한데이어 86년까지는 전문점 편의점(체인식잡화상회)에 88년까지는 일반시장과 전점포에 가격표시를하도록 방침을마련하고 지정업소로서 이를 지키지않는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도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 싼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극장이나 사우나탕등 폐쇄된 개별업소에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것이다. 【徐春淑기자】

石油판매소에 强盜 주인打殺 금품털어

【大邱】7일밤 11시40분께 大邱市壽城區池山洞1060 일성석유판매소(주인 오재병·63)에 괴한이 침입, 돌로 주인吳씨의 머리를때려숨지게하고 3돈중짜리 금반지 1개와 시티즌 손목시계1개등 모두 16만원어치를 털어달아났다. 【聯】

가짜醫師등 5명拘束

면허빌어 營業, 助手시켜 診療

17명은 立件

서울시경은 8일 불법의료행위를 일제단속, 서울 銅雀區本洞126 鷺梁津의원원장 尹英殷씨(66)와 이병원간호보조원 朴淑子씨(39·여), 서울鍾路區鍾路1街24 東亞의원 조수 金熙坤씨(27)등 5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九老區加里峰洞140 명신의원 원장 李順奭씨(43)등 의사·조수·간호원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적발된병원은 모두 13개인데 불법의료행위는 ▲나이가 많은 의사가 무자격자인 조수를 고용, 환자진료를 시키거나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원장이 의사면허를 빌려 고용형식으로 병·의원개설허가시의 신고와는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한 것등이다.

鷺梁津의원의사 尹씨는 보조원 朴씨를 고용, 지난해 8월23일하오5시35분께 분만진료를 받으러온 鄭모씨(28·서울銅雀區本洞)를 조수 朴씨에게 맡겨 진료시키는등 지금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불법진료를 하게 했다는것.

구속자명단은 다음과같다.

▲金熙坤▲尹英殷▲朴淑子▲정정섭(서울江東區岩寺洞 광진의원사무장)▲金哲錄(48·서울鍾路區鍾路5街海南의원사무장)

밤氣溫 쌀쌀

오늘낮에는 例年 비슷

봄눈이 내렸다.

7일하오부터 영·호남내륙지방과 중부지방에 내리기시작한 눈은 8일상오까지 大關嶺52·5cm를 최고로 전국적으로 평균2~5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중앙기상대는 8일 서해북부해상에 중심을둔 저기압의 영향으로눈이내렸다고밝히고 이날낮부터 중부지방은 차차개겠으나 호남 내륙지방은 계속 눈이 오겠다고 예보, 8일상오10시를 기해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예상 적설량은 10~20cm.

중앙기상대는 또 이날하오3시를기해 전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는데 9일에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가끔흐리겠으며 기온은 서울의 영하5도를비롯, 濟州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2~8도까지 내려가겠으나 낮기온은 영상2~7도로 예년과같은 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봄샘눈2cm에 지각사태 오는 봄을 시샘이나 한듯 7일 밤새 서울시내에는 2cm의 눈이 내렸다. 입춘을지난 때늦은 눈에 서울시내 교통은 두손을 들었고 출근길의 시민들은 시간을 대느라 종종걸음을 치기도 했다. 【8일아침 서울화곡洞에서】

67개 初中高校 신설

서울市教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과밀학급및 과대규모 학교의 완화와 지역별 학교분포및학생수용능력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안에 9백40억원의 예산을들여 국민학교29개교, 중학교28개교, 고등학교10개교를 신설하고 培材고등 도심권 6개고등학교를 오는85년까지 江南지역으로 이전키로했다.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은 이날상오 全斗煥대통령에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외금지에 따라 자율학습능력을 키우기위해 교과별·능력별 이동수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VTR·어학실습실등 교육기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로했다.

또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장자율화에 대비, 학생복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학교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복장자율화의 정착을 꾀하기로 했으며 건전한 여가활용을위해 10여개소에 일요극장을 운영하는 한편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위는 또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기위해 과학실험보조원 3백73명을 배치하고 컴퓨터 설치교를 현재의15개교에서 26개교로 늘리며 내년3월에 12학급규모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시교위는 86년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회화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학생선수를 발굴, 훈련시키기로했다.

간첩신고하는 마음 안정기반 다져진다
간첩침투 방지표어

휴가중 안내양絞殺

怪漢 연탄집게로 목졸라

【浦項】8일낮 12시10분께 경북浦項市松島洞山1 안용문씨(50)집 안방에서 혼자집을보던 安씨의장녀 정애양(17)이 괴한으로부터 연탄집게로 목이졸려 신음하고있는것을 같은동네에 사는 숙모 김순금씨(43)가 발견, 포항선린병원으로 옮겼으나 30분만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安양은 버스안내양으로근무하다 7일전에휴가를얻어요양하던중이같은변을당했다는것. 【聯】

아파트 分讓계약서·職印 위조

8천만원 詐取…구속

서울鷺梁津경찰서는 8일 車石龍씨(43·무직·서울銅雀區黑石1洞295)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車씨는 지난10월 아파트 건설업체인漢陽주택(대표 裵鍾烈)이 서울江南區瑞草洞에 35평형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이회사의 주택분양계약서 원본을입수한다음 이를 中區乙支路4街 모인쇄소에서 대량인쇄한후 이회사 대표 裵씨의 직인까지 위조해 10여장의 가짜분양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車씨는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이용, 이 아파트6동71 1호를 분양받은 것처럼속여 지난해9월4일 崔우영씨(30·江南區狎鷗亭洞 現代아파트24동)에게 『이 아파트가 漢陽주택이사가 사원용을지어 분양받은것이므로 내가은밀히 팔아주는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적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2천만원을받은것을비롯, 모두 4차례에걸쳐같은수법으로8천8백70만원을 사취한혐의다.

성냥장난 불나 잠든姉妹 燒死

【安東】7일 하오6시20분께 경북安東郡豊川面하구동682 이용순씨(46)집 안방에서 불이나 방안에서 잠자고 있던 이씨의 2녀 선녀(5) 3녀 인순양(3)자매가 불에타 숨지고 초가1동이 완전히 탔다.

이날 불은 이씨부부가 이웃에 간사이 장녀 선자양이 성냥으로 불장난을하다 불이 자기옷에 붙자 엉겁결에 불붙은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바람에 일어났다. 【聯】

533－2361

社會主義 비판교육

서울大, 실시않기로

서울大는 8일상오 교과과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교양과정에서 실시할것을 검토해온 「사회주의 비판교육」을 새학기에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大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교를 갓졸업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비판교육을 할 경우 자칫하면 역효과를 일으킬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입학하는 6천여명의 교양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개설을 검토해왔던 「제3세계와 한국」「현대사회주의 비판」등 2개이데올로기비판과목은 새학기에는 채택되지않게 됐다.

5行뉴스

◆毒劇物로 큰고니잡아 구속

【光州】전남康津경찰서는8일 독극물을 사용, 천연기념물 큰고니를 포획한 成平滿씨(28·康津邑永波里35)를 천연기념물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成씨는 지난달26일 康津邑林川里 저수지에 강력살충제를 놓아 날아온 40마리의 큰고니중 1마리를 죽게한 혐의이다. 【聯】

南海岸폭풍, 木浦에 선박5백40척 묶여

【木浦】남해안 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8일하오1시부터 전남 木浦항을 기점으로한 濟州 紅島 黑山島 등지의 해상교통이 끊겼다.

이때문에 목포항에는 濟州 黑山島 紅島 莞島 珍島 등지를 운항하는 40여척의 여객선과 5백여척의 각종선박들의 출항이 금지돼 3천여 승객들은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있다. 【聯】

配定師

서울市教委 중등과장 朴鍾明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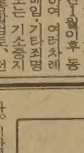
學校불만 抗議에 잠설치기 일쑤

일을 끝내면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법이다. 한동안 가슴을 더 죄야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시교위 중등교육과장학담당장학사 朴鍾明씨(49·사진)가 그런사람들의 하나다.

朴씨는 지난5일 후기고신입생배정을 끝내고도 잠을 제대로 자지못했다.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대하기가 겁나는 나날이었다. 어디서 학교배정이 잘못됐다는 항의가 터지고 이에대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년 배정기호가 발표된후 3~4일동안은 항의전화를 받으랴, 상사에게 불려가랴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난해만해도 가거주학생이 명문고주변에 몰리는 바람에 실거주학부모로부터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빼냈다』는 집단항의를 받아 홍역을 된통 치러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할이만큼 조용했다. 배정기호 발표후 지금까지 30여건의 부드러운 항의전화가 걸려왔을뿐이다.

항의전화를 건 학부모들도 『지역마다의 학교분포가 고르지못해 소수의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타학군으로 배정될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에 쉽게 수긍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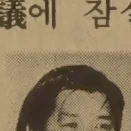
이처럼 배정기호발표후 별말썽이 없었던것을 朴씨는 말썽의 소지가 된 가거주학생들을 원거주지로 환원시켰기때문으로 풀이하고있다.

실제로 지난한햇동안 세칭 명문고 10개교주변 48개동에 대한 가거주학생조사를 해 7백23명이 실거주지로 강제환원됐고 1천2백여명이 자진이동했다.

지난61년에 교사로 투신, 상업·일반사회 교사로 18년간 일선교단에 섰던 朴씨는 지난80년부터 장학담당 장학사로 입시관리업무를 맡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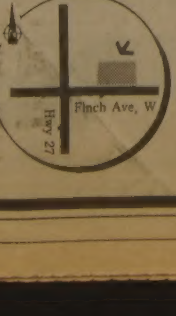
연합고사를 치르는 12월중순부터 중·고신입생에 대한 학교배정을 하는 2월초순까지 50여일간은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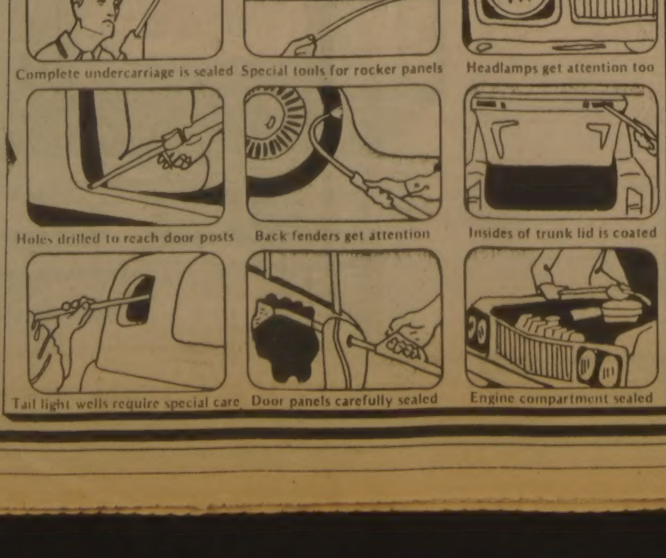
밤11시까지 야근하는건 보통이다. 시교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한다. 직접 시내버스를 타며 통학거리와 시간등을 조사,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일도 해야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역에 따라 학교분포가 다른 현실정에선 모든 학생들에게 불만없는 배정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자리에 있는한 朴씨가 마음을 놓을날은 영원히 없어보였다. 【方旼俊기자】

-교포운영업체-
VITAL®
NEW & USED CAR RUST PROTECTION
PROTECT YOUR INVESTMENT
자동차는 귀중하고 값 비싼 재산
녹쓸지 않고 오래 보존하도록 보호합시다.
⊙교민 특별가격봉사
COMPLETE RUSTPROOFING & UNDERCOATING SERVICE
VITAL CENTRE—ETOBICOKE
6590 FINCH AVE. WEST REXDALE, ONT. M9V 3Z6
741—2701
VITAL 'LIFETIME' RADIATOR SERVICE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強訓현장을 가다

三美슈퍼스타즈 (下)

토박이 金감독 "올핸 仁川根性 보여주겠다"

◇金振榮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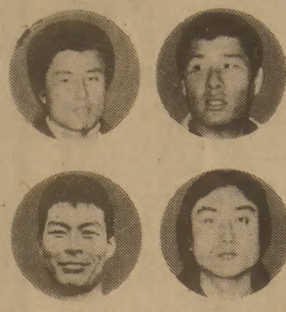
三美슈퍼스타즈의 출발은 지금부터다。뒤늦게 깨우친「프로의식」으로 三美는 83년 새로운 탄생을 알리고 있다。

82년 취해 계약한 27명의 선수중 11명이 프로부적격자로 방출됐다。새얼굴의 13명이 보강됐다。83년시즌을 대비한 슈퍼스타들은 모두 29명。

최하위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三美는 거친 물결을 헤어줄 새 지도자로 金振榮감독을 맞아들였다。仁川야구의 대선배이기도 한 金감독은 흐트러진 三美의 규율을 바로잡아 슈퍼파워를 길러줄 적임자로 기대되고있다。

『仁川의 근성을 보여주겠다。내가있는한 三美는결코 쉽게무너질수가없다』

金振榮감독은 60년대후반 해병대를、프로이적 직전에는 仁荷大를 전국정상으로 이끌어 올려 짜고 매섭고 끈질긴 仁川야구의참맛을 보여주었다。



◇張明夫　◇李英求　◇任昊均　◇金鎭雨

三美는 勇將 金振榮감독에 才士 李在煥코치를 보강、실전에 가장 밝은 코칭스태프를 갖추고있다。

새 코칭스태프、새 선수들로 83년 팬들앞에 나설 三美슈퍼스타즈는 82년과는 전혀 다른 팀이다。

20승을 장담하는 在日同胞 張明夫、실업야구 최우수 방어율투수 任昊均을포함、金相基、柳鍾天、鄭成萬이 三美 마운드에 가담했다。

노장 琴光玉이 장타력을 살리기위해 홈을 신진 朴明賢에게 넘기고 국가대표 포수 金鎭雨역시 배트를 살려 1루수로 나설예정이다。

내야에는 기동력좋은 在日同胞 李英求와 李善雄이 보강되어 許云、李哲聖등과 함께 잠기레이스를 여유있게 준비할수있게 되었다。

외야에도 三星에서 이적해온 베테랑 鄭丘旺、신진 崔洪錫、金大鎭이 합세해 도깨비 방망이의 신봉력을 더해줄것으로 보인다。

『선수스카웃에 만족한다。특히 투수진보강은 대성공이다』

張明夫、任昊均은 어느 팀에서도 찾기힘든 노련한 기교파투수。두 투수에 대한 믿음으로 印浩鳳、金在峴의 피칭으로 한결 안정되리란는게 金감독의 기대다。왼손잡이 金相基、甘四用、鄭成萬도 어려운 고비를 처리해줄 구원투수로 다듬어지고있다。

『최소한 50승은 문제없읍니다』

그러나 金振榮감독의 매서운 눈초리엔「취임 첫해 우승」의 야망이 불타고있다。【方錫鉉기자】

◇코칭스태프

감독	⑱	金振榮	(49)
코치	㊾	李在煥	(43)
	㊶	李善德	(42)
	㊵	李春根	(35)

◇선수명단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左右	前소속
투수	㉞	張明夫	33	182	右	廣島
〃	⑫	任昊均	27	175	〃	한전
〃	㉝	金相基	22	176	左	인하대
〃	㉛	印浩鳳	25	178	右	한전
〃	⑲	金在峴	24	184	〃	포철
〃	⑭	柳鍾天	27	178	〃	성무
〃	㊲	吳文鉉	30	174	〃	한국화
〃	㉘	甘四用	26	172	左	인천체
〃	㉑	鄭成萬	28	178	〃	한전
포수	⑪	金鎭雨	25	188	右	인하대
〃	②	朴明賢	25	176	〃	충암대
〃	㉒	琴光玉	27	176	〃	상업은
〃	㉕	崔榮桓	24	180	〃	영남대
내야	⑨	李英求	29	179	〃	廣島
〃	③	趙興雲	29	180	〃	한국화
〃	⑥	許云	24	175	〃	충암대
〃	①	金武寬	27	174	〃	한일은
〃	⑩	張貞起	25	174	〃	한전
〃	④	宋慶燮	23	168	〃	인하대
〃	⑤	李哲聖	26	170	〃	한전
〃	⑯	李善雄	23	173	〃	인하대
〃	⑦	李光吉	22	170	〃	〃
외야	㉗	金慶男	24	176	〃	〃
〃	⑱	金浩仁	29	176	〃	한국화
〃	⑧	梁承琯	24	180	〃	포철
〃	⑰	鄭丘旺	29	177	〃	삼성
〃	㉘	朴俊英	30	174	左	제일은
〃	⑮	金大鎭	27	181	右	경리단
〃	⑬	崔洪錫	24	175	〃	고려대

◇농구코트의 발레　鮮京과 信用保證基金의 8강전。保證基金의 金銀淑(©9번)이 슛하는 순간 鮮京 李愛子(14번)이 李明子⑤를 밀치며 슛을 저지하고 있다。

金和順이 버틴「東邦」4強접근

여자實業농구 격렬한 體力戰…國民銀 제쳐

鮮京·太平洋·코오롱도 準決勝 진출

東邦生命—鮮京、太平洋化學—코오롱이 제5회전국여자실업농구대회 준결승전서 격돌하게됐다。

8일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회 4일째 준준결승전에서 東邦生命은 國民銀行을 밀어붙여 68—52로 승리、준결승에 뛰어올랐다。

鮮京은 鄭徹惠가 팀플레이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면서 중거리슛을 터뜨리고 센터李愛子가 제공권을 잡지켜 기량과 팀웍이 달리는 信用保證基金을 76—56으로 대파하고 東邦生命과 결승진출권을다투게 되었다。

한편 太平洋化學은 朴贊淑·欄明蓉의 더블포스트 플레이와 洪英順의 슛으로 外換銀行을 82—68로 꺾고 준결승에 나갔다。

단신의 外換銀行은 착실한 스크린플레이로 외곽찬스를 노려 추격을벌였지만 신장의 열세로 분패했다。

東邦과 國民銀行은 모두 체력으로 승부를 가리는팀이어서 주목을 끌었다。포워드라인의 득점력으로 승부를가리는 패턴도 비슷하다。

金和順·吳蘭珠·李錦淑으로 짜여진 東邦의 포워드라인과 韓順愛·王同子가 버티고있는 國民포워드라인은 초반부터 열띤 격전을 벌였으나 金和順이 버티고 있는 東邦이 우세했다。

國民銀은 가드 孔賢子의 활약으로 전반서 30—26으로 앞섰지만 후반 10분을 지나면서 東邦은 가드진을 앞으로 내세운 변칙공격과 金和順·吳貞淑의 슈팅이 터져 리드를잡았다。孔賢子의 중거리와 韓順愛의 골밑슛으로 따라붙던 國民銀은 韓順愛가 5분여를 남기고 5반칙으로 퇴장당해 완전히 무너졌다。

◇제4일 준준결승

동방생명 68	(38—26 30—26)	52	국민은행
선경 76	(40—30 36—26)	56	보증기금
태평양 82	(38—30 44—38)	68	외환은행
코오롱 57	(33—22 24—18)	40	상업은행

스웨덴 國際레슬링 한국등 21개國참가

제22회 메라컵 국제레슬링(스웨덴·2월18~20일·그레코로만형)대회에는 한국을비롯、蘇聯·東獨등 21개국이 출전한다고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한레슬링협회에 알려왔다。

한국은 이번대회에 7명의 국가대표선수를 참가시킨다。

◇출전국=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 동독 서독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미국 캐나다 쿠바 일본 유고 체코

金美테니스 우승 에버트、예거制壓

【팜비치가든(美 플로리다州)=外電】 여자 테니스랭킹 세계2위에 올라있는 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6일 15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金美테니스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안드레아·예거를 6—3、6—3으로 격파했다。

2만7천달러의 상금을 받은 로이드는 80분만에 예거를 물리쳤는데 나브라틸로바는 이번에 참가하지않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01

李 體操協회장 사퇴

"理事陣구성 意思반영안됐다"

競技人이사들 妥協案모색

대한체조협회 李富鎔회장(대림요업사장)이 8일 사퇴했다。

李富鎔회장은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이사진 구성에 자신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그동안 경기인 이사들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 8일 새이사진구성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사퇴서를 사무국에 보내왔다。

李회장은 현재 구성된 이사진에『일할사람은 없고 세부릴 사람만 가득하다』며 實名인사들을 제거하고 협회를 위해 일할사람이 이사진에 보강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李회장의 사퇴통고를 받은 경기이사들은 9일 대한체육회천기총회직전까지 李회장을 설득、타협안을 모색키로했다。

日 원로野球심판초청 국내프로審判 강습회

KBO

한국야구 위원회(KBO)는 83년 시즌에 대비해 日本프로야구의 원로 심판들을 초빙、국내심판 강습회를 갖는다。

KBO는 곧15명의 심판계약을 끝내고 오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소양강좌 심판트레이닝 시범경기를 통한실전 연습등을 가져 심판자질향상을 꾀하기로했다。

24일부터 5일간 仁川오림포스호텔에서 있을 특별강습회에는日本프로심판 도미자와(富澤)、히로야、오까(沖) 가쓰미씨등 2명의 원로가 강사로 초빙된다。

한편 KBO는 지난해계약심판 15명중 朴致奎 朴明勳씨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아마추어심판위원이던 金榮一(44)、金良經(36) 朴贊皇(36)등 3명과 새 계약을체결했다。

실업排球 3次연맹전 對陣확정

男4·女10개팀 出戰

82년 실업배구 3차연맹전(2월13~20일·장충체육관) 출전팀과 대진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여자실업팀과 綜合化學을 제외한 4개남자팀이 출전하는데 여자는 3개예선조로 나뉘어 리그를 펼친뒤 각조 상위 2팀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하며、남자부는 풀리그로 패권을 다툰다。특히 이번대회에는 남녀국가대표선수들이 모두 소속팀에 합류、오랜만에 빅게임이 펼쳐지게 됐다。

國家대표선수도 모두참가

◇출전팀

▲여자A조=湖南精油·韓一合纖·鮮京合纖·道路公社 ▲동B조=泰光産業·美都波·國際商事 ▲동C조=現代·曉星·후지필름 ▲남자=서울市廳·雄飛·金星·韓國電力

環太平洋 스키參加 선수단8명 日向發

제1회 환태평양지역 스키대회및 제54회 미야사마국제대회(13~20일 北海道)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 8명(임원4 선수4)이 8일 떠났다。

환태평양지역 스키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日本·濠洲·뉴질랜드등 4개국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단 ▲단장=崔浩 ▲감독=柳鍾顯 ▲코치=郭永周(신경여상) ▲선수=魚偶淵(강릉상)、高泰鉉、南元基(국민대·이상 알파인) 朴基鎬(진부고) 洪根杓(국민대 이상 노르딕)

스포츠話題

美 프로농구 LA팀 名센터 압둘·자바

火災만나 20億짜리 호화邸宅 날려

미국 프로농구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팀의 장신 센터 카림·압둘·자바선수 (35) 가 최근 뜻하지않은 화재로 LA베버리 힐즈에 있는 호화저택을 몽땅 태워 상심하고있다。

경찰은 손해액을 2백5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 화재소식을 들은 자바는『아까운 물건들이 거의 전부 재로 변했지만 사람이 다치지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불타버린 자바의 호화 맨션은 8년전 구입한 것으로 이번 화재로 3천장의 레코드판을 비롯하여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타버렸다는것。

자바는 틈만 있으면 책읽기를 좋아한 독서광이었는데『책을몽땅 태운것이무엇보다애석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관중인 각종 트로피의 90%가량을 구해냈다고한다。

【로스앤젤레스籍=外】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8譜 155~170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1勝1敗〉

黑(6段) 張秀英 〈2勝0敗〉

부푸는 白大家

우상의 패를 黑55로 굽혀시키고 白대마는 일단 안전권에 들었지만 대세는 여전히 黑이 우세。어디에선가 반격의 실마리를 잡아야한다。

白56은 진작부터 두고싶었던곳。마침 그 적시라 생각한 모양이다。하나 같은 값이면 이수로 68쪽을 먼저 밀고싶다는 국후총평。다행히 黑이 그 68자리를 꼬부리지않고、부자몸조심격으로 57쪽을 붙인데에 白은 68·70의 좌측일대에 광활한 영지를 확보하게되었다。

『역시 黑57은 68로꼬부려야했나』

『중앙을 63까지 벌어놓인것도 크지않아?』

『여기서 역전되는 곬인데』

『아니 그래도 집부족…』

국후검토때 주고받은 張·李의 문답이거니와 여기까지의 과정을 趙南哲8단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었다。

『우상 白대마는 白66 선수덕분에 이곳에서 손을뺄수있어서 68、70에선 편하여 형세를 크게만회했다』

그리고 李4단의 기민한 솜씨가 불만하다고한다。더구나 黑69를 부득이 응수하게 만든 점도 범연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것。

黑69를 손빼면 어찌되느냐고 물었더니 『白이「가」쪽에서 몰아 黑「나」때 白「다」하는 끝내기가 이십점에서는 견딜수 없이 크다는 대답이었다。

이리하여 白이약간 부족한 백중지세에서 끝내기다툼이 점입가경에 접어든다。【一丸】

張吉山 〈1661〉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21)

양주 청송면 대탄(大灘)은 율치로부터는 북쪽으로 칠십여리나 떨어져 있었으니 원래 양주목 경내의 생김새가 긴 자루 모양 남북으로 뻗어나간 때문이다。이를테면 대탄은 북쪽의 끝인셈이었다。

임진강의 상류인 물과 근원은 두 갈래였다。하나는 영평현(永平縣) 백운산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 철원의 체천(?川)에서 나와합류하였다。이를 한탄강이라하니 대개 큰여울이란 뜻이다。강은 연천 영평을 지나 서남쪽으로 굽이쳐서 파주문산포에서부터 조수와 만나면서임진강 하류를 형성하였다。대탄은 영근산(嶺斤山)일대와 산내(山內)를 좌우에두고 남쪽으로 거의 옥에 이르기까지 뻗어간 초촌내(草村川)에 닿아 있었다。대탄은 동으로 영평(永平)동남으로 포천(抱川) 북으로는 연천(漣川)과 삭녕(朔寧) 서쪽으로 장단(長湍) 파주(坡州)에 통하였고、그 사방에서 거의중간에 위치하는 지점이었다。초촌내 좌우로는 너른 들판이 산줄기 사이로 펼쳐져 있고 대전리(大田里) 부근은 그야말로 오밤의 길이 만나는 곳이었다。또한 바로 심곡산이나 천보산 고개를 넘으면 송우(松隅) 남전 이었다。

여환의 청성암은 대탄의 영근산 아랫녘에 있었다。북쪽으로 강 건너 가사벌이 아득하게 펼쳐있고 한탄강의강물은 속의 자갈이 떠있는 것처럼 해맑았고 강원도 방향에서 흘러내리는 체천이 만나서 물살이 거세게 굽이쳐잤다。초촌내는 바로 청성암 치처에서 흰 포말을 드러내며 콸콸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무덥게 찌는 볼별 더위였지만 청성암 부근은 느티나무와 밤나무 은행나무 때 갈나무로 짙은 숲이 이루어져 있었고 강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왔다。숲아래 큰바위들이 울따라 오르면 새로 지은 제당처럼 우뚝우뚝한데 오솔길 번덩쩍한 초가가 나왔다。토담위에도 짚이엉을 덮었고 집집도 벗기지 않은 소나무 기둥위에 청성암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아직 단청의 황토흙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붉었고 대들보와 기둥에서는 송진 냄새가 나는듯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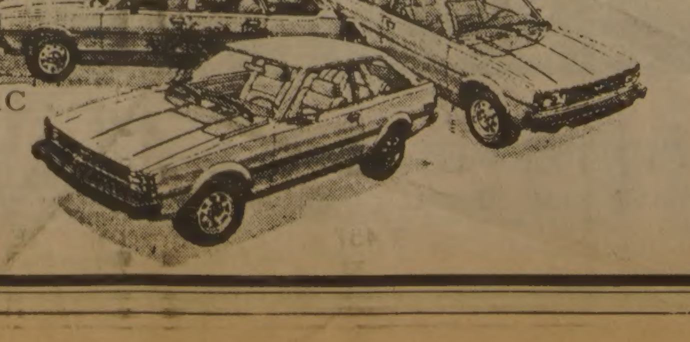
청성암은 기여자의 집인데 법당 겸 대청을 가운데 두고양쪽에 방이 있었고、부엌과여 할의 방이 있었다。단청만을 돈이오 불화 영정 하나 보이질 않았고 불상도 모시질 않아서 사찰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다。청성은 이전의초가살간 자리에다 밤두 갈을 늘려 지었던 것이었다。법당으로 쓰는 마루 가운데에는 상을 놓고 촛대와 향 그릇을 올려 두었고 자씨미륵존불(慈氏彌勒尊佛)이라 쓴 족패를 중앙에 올려 두었을 뿐이었다。대탄과 대전리 중간 어름의 산내(山內) 동성이가 두 팔처럼 벌려진 곳에 시내비골(五十老洞)이 있었는데、시동이네가 수년전에 진관사 아랫녘에서 이사와서 살고 있었다。계화 김승문부부는 은율에서 여환만 믿고 따라왔다가 처음에는 시동이네 헛간에 방을 들여 살더니、칠성암을 늘려 짓게되자 그리로 옮겨갔던 것이다。환회와 정원태가 가끔씩 방문하기도 하였고、계화는 여환과 함께 부근의 궁평리 초성리 온동나무골 등지로 향도를 얻으러 다녔고、차츰 혼자서 내문면 입북면 동면에까지 나다녔다。청성암에 향도들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었고、초하루와 보름에 원하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올렸다。따로이 수도를 원하는이들에게는 사나흘씩 청성암의 기도방에 머물도록 하였다。계화나 환회는 향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일단 칠성암으로 데리고 왔다。

가장 싼이자!

12.9%

G.M.A.C.이자율

2월말까지



◇각종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Grant Brown

1575 WESTON RD.

WESTON, ONT

☎: 247—7161

이한구

한국일보

國軍장비·防衛산업 지원

全대통령, 슐츠美國務 접견 1시간50분 要談

南北韓 對話실현 노력
太平洋 정상회담 찬성

◇全대통령이 7일상오 청와대에서 슐츠美국무장관과 韓美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요담에 들어가기앞서 악수를 나누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7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을 맞아 요담을갖고 韓半島를 포함한 주변정세와 양국간의 안보및경제협력강화방안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1시간20분간에 걸친 오찬을 포함, 1시간50분간 계속된 요담에서 全대통령과 슐츠장관은 北韓의 漸增하는 도발위협등에 비추어 자유세계방위의 첨단에위치한 韓美양국은 긴밀한 안보협력을강화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한편 駐韓미군은 韓半島뿐만 아니라 東北亞의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불가결한 요소라는데 의견을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과 슐츠장관은 또 韓美상호방위조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점을 다짐하고 한국방위에 필요한 미국측의 장비지원과 한국방위산업육성지원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

全대통령은 특히 최근 中共과 소련의 和解분위기등 공산권은 결속하는 분위기를 보이고있으나 西方측은 自國의 國益만을 추구해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자유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해야한다는한편 東北亞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이 중심이돼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점을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슐츠장관은韓美양국의 안보협력은 이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교란시키는 세력의 도발에대해 단호하게 힘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미국의 世界觀에입각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양국간의 안보협력은 더욱강화돼 나가야 한다는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전해졌다.

全대통령은 南北韓 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제안한 南北韓당국최고 책임자회담및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설명하고 北韓측의 武力도발위협 세계평화를 교란시키는 武力혁명수출등을 경고한뒤 한국은 이에대비, 경제력신장을통한 국방력 강화등을 기하면서 인내심을갖고 北韓이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도록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또 太平洋정상회담은 西方정상회담이나 英聯邦정상회담과같이 구속력을 갖지않고 자유스럽게 域內頂上들이 만나 어려운문제들을 풀기위해 의견을나누자는데 뜻이있다고 그배경을설명했으며, 이에대해 슐츠장관은 贊意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全대통령은 이어 經協문제등과관련, 양국의상호무역증가와 자본기술협력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침체된세계景氣를 회복하기위해선는서로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국제金利수준을 인하하는등 경제여건개선을위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역할이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슐츠장관도 이에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요담에서 南北韓交叉승인문제는 거론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담에는 李範錫외무장관, 柳炳賢駐美대사, 워커駐韓美대사가 배석했으며 이어 全대통령내외가 슐츠장관내외를 위해 베푼 오찬에는 한국측에서 李외무, 柳대사내외, 鄭順德 청와대政務제1, 金在益경제, 黃善必공보수석비서관이, 미국측에서는 워커대사내외, 슈나이더국무차관, 월포위츠차관보, 휴즈대변인, 세네월드韓美연합사령관, 한우국무성政治군사국작, 시겨안보회의 선임보좌관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슐츠, 前方시찰 오늘 離韓會見

訪韓중인 슐츠美국무장관은 7일하오 전방을 시찰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워커駐韓美대사내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슐츠장관은 8일상오 金浦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특별기편으로 離韓한다.

對韓防衛公約 재확인

韓美 外相회담 "借款증액·交叉승인 계속協議"

李範錫외무장관과 슐츠美국무장관은 6일하오 외무부장관실에서 韓美외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東北亞정세에 관한 의견교환과함께 韓美안보협력강화방안 미국의 對韓군사판매借款(FMS) 우리防産品의 제3國 수출문제등 韓美간의 현안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슐츠장관은미국의 한국에대한 방위책임은 변함이없다고 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회담에배석한 孔魯明외무부 차관보가 밝혔다.

슐츠장관은 또 對韓FMS 增額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금년도 對韓 FMS 2억1천만달러중 美의회에서 삭감된 7천만달러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것을 비쳤다.

한편 우리측이 제기한 방위산업제품의 제3國 수출문제에 대해서 미국측은 앞으로 여러경로를 통해 협의하자고 밝힌것으로 孔차관보는 전했다.

이날 외상회담에서는 南北韓 交叉승인문제도 거론됐지만 이문제는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孔차관보는『슐츠장관이 中共을 방문했을때 이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슐츠장관은 全斗煥대통령이 제창한 太平洋정상회담에 관한 한국측의 경과 설명에 『훌륭한 構想』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를 계속하자는데 동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슐츠장관은 오는 4월 李範錫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줄것을 초청했다.

이어 7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韓美 실무자 회담에서 미국측은 中蘇관계와 군축회담과 관련된 소련의 SS20 미사일의 極東배치문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앞서 슐츠장관은 6일하오 2시55분 특별기편으로 부인및 隨行員들과 함께 金浦공항에 도착, 來韓했다.

韓半島 擧論안해 와인버거 곧訪中 슐츠會見서 밝혀

【北京AP=聯】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6일 자신이 외상 吳學謙등 中共고위지도자들과 가진 공식회담에서는韓半島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臺灣문제 未決 中共주장

【北京AP·UPI=聯】중공은 6일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이 양국관계의 심각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양국관계의 회복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공은 이날 슐츠장관이 4일간의 방문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떠난지 수시간뒤에 관영新華社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식논평을 통해 슐츠장관의 이번 北京방문이 양국관계에 『어느정도』기여는했으나 대만문제를 비롯한 쌍무문제에 관한 이견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택시料 週內에 引下

走行요금만

電力·工産品조정도 촉진

정부의 이번 油價조정으로 원가중 연료비 비중이 큰 공산품들을 비롯해서 전력및택시요금등이 재조정되게됐다.

또한 유가인하와 관련된 각종 요금조정은 정부의 물가안정화시책과 함께 작년말부터 부분적으로 단행돼온 공산품의 가격인하 추세를 더욱 확산시킬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10개 기본생필품 58개 공산품가격 관리대상품목등 1백27개 품목에대해 그간의 원자재 가격인하나 이번 유가조정으로 인한 가격인하 요인을 분석해서 가격인하 요인이 있으면 이를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6 유가조정으로 부탄가스값이 11·1% 인하됨에따라 택시요금은 3·19%의가격인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해의 유류값 인하효과까지 감안, 빠르면 이번주안에 요금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요금을 내릴경우 기본료는 그대로두고 주행료를 조정할 계획이며현재 4백m당50원인 주행료를 5백m당 50원으로 조정하거나 4백m당 주행료를 50원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유값 인상으로 기차 버스 화물차 선박등은 0·2~0·3%의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으나 이를 경영합리화로 흡수시켜 철도및 버스요금등 다른 교통요금은 인상치않을 방침이다.

전력요금은 벙커C유가 1·5% 인하됨에따라 연료비중에서 0·75%의 원가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전력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 하기에는 미흡해서 이번에는 조정하지않고 오는3월께 해외원유값이 더내려 국내 기름값을 재조정할때 함께반영키로 했다. 韓電의 경우 현재발전연료비에서 벙커C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4%여서 이번유가조정으로 연간 2백억원의 연료비를 줄이게됐다.

또한 원가중 연료비 (벙커C유) 비중이 20~30%인 시멘트·판유리·요업·제분등도 0·3~0·45%의 가격인하요인이 생겼는데 인하율을 가격조정에 즉각 반영시키기엔 아직 미미하고 해당업계의 경영수지도 별로 좋지못하기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다.

비료의 경우는 원가의50% 비중인 나프타(공정용나프타 35%, 연료용나프타15%) 값은 조정이안된데다 벙커C유 비중은 8%에 불과하기때문에 가격인하요인은 별로 없다.

플래스틱을 비롯한 각종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한 생필품들도기초원료라할나프타가격이 조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별다른 가격인하요인은없다.

그러나 이번 유류가격조정은 모든 공산품에 연료비등 간접적인 부담경감요인이 되고있기때문에 국제원자재값 인하, 저금리수준등을 감안해서 각종 비용절감, 생산성및 기술향상등에의한 원가절감요인까지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앞으로 전반적인 공산품가격인하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분석되고있다.

蘇위성 墜落확률 印度洋上空 70%
美國防省"어제밤에 燒盡"

【워싱턴AP·UPI=聯】고장난 소련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마지막 잔해인 원자로부분이 7일상오7시 (한국시간·이하같음) 현재급속도로 하강, 지표면상공 1백45㎞내의 궤도를선회중이며 7일하오 8시24분께 대기권에 재돌입할것으로 보인다고 美국방성관리들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방성대변인은 약49㎏의 농축우라늄을적재하고 있는 코스모스1402호 원자로부분이 7일하오3시28분에서 8일새벽 0시28분사이에 대기권에재돌입, 불타 없어질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국방성관리들은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로추락중인 원자로부분의 궤도상의 움직임을토대로 예상해볼때 이원자로부분이 印度洋상공의 대기권에돌입할 가능성은70%, 美상공의 대기권에돌입할 가능성은 2%, 카나다상공의 대기권에돌입할 가능성은 3%, 그리고 蘇聯및기타지역상공의 대기권에 돌입할가능성은15%라고말했다.

3黨, 84億원 사용

작년 政治자금 民正82、民韓12、국민5%

民正·民韓·국민등 주요 3黨이 작년 한햇동안에 사용한 정치자금은 모두 84억6천2백만원으로 이중 民正黨이 전체의 82·6%인 69억8천7백만원을, 民韓黨이 12·2%인 10억3천3백만원을, 국민당이 5·2%인 4억4천2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民正黨이 이날발표한 자금內譯을보면 수입은 81년의57억9천만원보다 12%늘어난 69억8천7백만원으로 ▲黨費 29억7천만원 ▲후원금 20억 ▲國庫보조 4억4천만원 ▲기탁금5천4백만원▲광고수입등 기타수입금 10억8백만원이고 지출은▲지구당 관리비24억원▲중앙당운영비 3억6천만원 ▲人件費 18억원▲당원연수비 16억6천7백만원▲사업비 6억원 ▲移越金 1억6천만원등 69억8천7백만원이다.

民正黨의 정치자금중에는 특별당비인 중앙정치연수원 增築費 38억9천7백만원은 포함되지않았다.

民韓黨 수입금 10억3천3백만원은 ▲黨費 2억1천4백만원▲국고보조 2억7천2백만원▲기탁금 3억3천1백만원▲재정위원회갹출금 2억3천5백만원으로 支出內譯을보면▲지구당보조및인건비 4억6천만원▲사무실운영비 6천7백만원▲훈련비 7천5백만원▲조직활동비 8천5백만원▲회의·경조비등 2억9천만원▲당보발간비및 조사연구비 2천8백50만원▲移越金 8천5백만원등이다.

이란軍、최대攻勢

이라크領진격 3大전략요충 占領

【니코시아·바그다드AP·路透=聯】이란군은 이란·이라크 전쟁발발이래 최대의 공격을 감행, 7일 새벽3시 국경을 넘어 이라크의 3개전략지역을 해방시켰다고 이날이란관영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알·파즈르라고 명명된 이번 공세에서 국경지역에 광대한 전략거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라크군 성명은 이란군이 바그다드 동남방 미산省을 방어하고 있는 이라크군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해왔으나 알·샤이바 지역에서 이를 저지, 이란군에게 격심한 타격을 주어 물리쳤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自家운전제 4급以下까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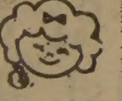
정부는 공무원의 自家운전제를 점차 확대키위해 현재 3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주어지고있는 차량구입비지원,융자비보조등 혜택을 4급이하 공무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7일 自家운전은 고급공무원뿐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자가운전 공무원에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많은 공무원에게 주어질수있도록 혜택범위를 넓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PU준비위원장 權正達의원 뽑아

국제議會연맹(IPU)한국議員團(회장 丁來赫의장)은 7일 오는 9월 서울서개최되는 제70차 IPU총회준비위원회를 전체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에 權正達의원(民正·IPU이사회의장)을 임명했다.

의원단은 또 준비위원회사무총장에는 禹炳奎국회사무총장이 겸임토록했으며 정부측에도 IPU총회준비지원위원회를 구성, 국회의 준비업무를 적극지원해주도록 요청키로했다.



533—2361

社會漫評

올라만 가는전줄 알았는데…

地平線

『담배를 끊는다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보고가 작년초 프랑스의「메디컬·저널」지에 실렸었다. 10년동안 담배를 비교적 적게 피우는 의사들을 조사해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는 보고다. 영국의 의학전문지「랜싯」도 담배를 적게 피우는 스웨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사람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 나오는 뉴잉글랜드 의학보가 담배도 약이 된다는 보고를 낸것은 지난2월이었다. 담배골초에게 궤양성 대장염이 적다는 보고다. 영국에서는 담배산업이 18만4천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한해에 7억9천1백만파운드의 소득을 안겨주고있다는 보고가 작년3월초 나왔었다. 담배 제조와 유통에 직접 관련된 경제효과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최대 담배시장은 역시 미국이다. 미국사람들이 연기로 날려 보내는 담배는 한해 6천억개비가 넘고있다. 일본이 미국의 절반, 브라질이 다시 일본의절반이다. 그만큼 미국의담배는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담배재벌 6개중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전매청을 뺀 4개가 미국계의 담배재벌이다. ▼그러나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숫자는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이 앞서고있다. 70년대의 통계를 보면 한해 평균3·8%씩 늘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겨우 1·5%, 공산권은 2%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엔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인구비율이 미국의 2배나 된다는 것이 갤럽여론조사결과 나타났었다. 남자의 67·7%가 담배를 피워, 미국의 38%의 2배 가까운숫자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만큼 자주 듣는 얘기다. 담배 때문에 생긴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해 미국에서 32만명이라는 것은 미국암협회의 경고다. 캐나다에서는 79년 한해에 2만8천7백명이 담배로 죽었다고 캐나다 보건당국이 작년8월발표했었다. 영국보건성은 담배의 유독물질로 작년말부터 니코틴과 타르에다 탄산가스를 더붙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한해 한번씩「금연의날」을 정하고, 스웨덴은 서기2005년까지「담배안피우는 나라」를 목표로 운동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경기때문에 담배판매가 목표에 미치지 못해 전매청을 괴롭히고 있다. 담배갑에 개인이름이나 사진을 넣는 주문생산에 응하기로 한것도 전매수입을 올리자는 방법의 하나다. 국가재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않는 사람도「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주장할때인것 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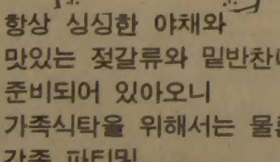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현

OUT OF THIS WORLD
CARPET CLEARANCE SALE
SAVE UP TO 70%
FREE INSTALLATION (무료 설치)
FREE UNDERPAD (스폰지 무료)
FREE DELIVERY (무료 배달)
FOR FREE SHOP-AT-HOME SERVICE CALL:
757-2811

STEWARTS CARPET LAND
1200 KENNEDY ROAD
SCARBOROUGH, ONTARIO

전통적 友誼바탕 安保협력 再確認

슐츠 美國務 訪韓사흘… 무엇을 남기고 가나

「交叉승인」새關心事로

防産品수출은 "기대밖"

南北韓交叉승인문제에 관한 「새로운방식」을 휴대하고 올지도 모른다는 관측속에 6일 來韓한 슐츠 美국무장관은 訪韓이틀째인 7일로 全斗煥대통령예방, 韓美외상회담등 주요일정을 거의 마쳤다. 全대통령과 가진 요담에서나 韓美외상회담 결과를 통해 얻을수 있는 슐츠장관의 訪韓의의는 韓美간의 전통적인 友誼를 재확인하고 안보협력을 비롯, 각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것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슐츠장관은 청와대요담에서 양국의긴밀한 안보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데 全대통령과 의견을같이했으며 李範錫외무장관과 가진 외상회담에서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對韓방위공약, 안보협력등에 관한 슐츠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1년 2월의 韓美頂上회담을통해 다져진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것으로 볼수있다. 이는 또 슐츠장관 자신도 밝혔듯이 韓美간의 안보협력이 세계평화를 위해 불가결하다는 미국의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그만큼 한국이 차지하고있는 전략적인위치를 미국정부가 높이 평가하고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 외교소식통들도 슐츠장관의 이번 訪韓은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재다짐하고 취임후 아시아지역에대한 현장파악」을 위한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그의 訪韓에 앞서 한 외교소식통은 「슐츠장관의 이번 極東巡訪은 신임 美국무장관으로서 아시아지역에대한 이해와 美·日간의 안보및 무역역조 시정문제 협의, 美·中共간의 정상관계회복에 주목적이 있으며, 韓美간에는 이렇다할 현안문제가 없다」면서 그의 訪韓이 친선방문 성격임을 시사했다.

그의 訪韓첫날인 6일하오에 가진 韓美외상회담결과는 이러한 외교소식통들의 견해와 같이 양국의 우호친선을 확인하는데 역점이 두어진것 같다.

李範錫외무장관은 회담뒤 두 인사말에서 「韓美修交 2세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슐츠장관의 訪韓은 의의가 깊은 것으로 우리로선 레이건대통령 취임이래 미국이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우방국간의 단결에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을 경하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슐츠장관은 레이건행정부 출범이후 韓美관계가 군사, 경제및對韓투자등으든면에서 공고해진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책임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확약했다.

그는 北京에서 서울로 오는 특별기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나의 한국방문 주목적은 미국의 對韓안보협력을 재다짐하고 이를 지지하기위한것이며 아울러 한국에 주둔하고있는 美軍에대한 나의 경의를 표시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슐츠장관은 7일 청와대로 全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과 韓美안보협력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과 한국방위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가 슐츠장관의 訪韓을 계기로 그동안의 현안인 防産品에 대한 제3국수출을 요구한것은 우리의안보와 앞으로 防産業界의 活路와 관련, 큰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국은 이번기회에 미국측의 구두약속뿐만 아니라 對韓방위지원을 위한 미국측의 구체적인 행동에대한 보장을 받기위해 외상회담에서 미국의 對外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및 우리 防産品의 제3국수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우리 防産品의 제3國수출문제에 대해 한국측은 防産시설의 유지를 위해선 순병기의 제3국수출이 불가피한점을 역설했으나 미국측은 이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우회적인 답변을 한것으로알린다.

防産品의 제3국수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것으로 과거부터 韓美안보협의회의 핵심문제가 되어 왔다. 미국측이 對韓방위지원을 역설하면서도 이에대한협의를 명확히밝히지 않은것은 『기대밖이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관련한 南北韓교차승인문제에 대해선 中共이 해결의 열쇠를 가진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슐츠장관의 北京방문에서는 이문제가언급되지않았다고 韓·美양측이 함께 밝히고있다.

그러나 6일의 공식외상회담에앞서 李範錫장관과 슐츠장관은 15분간 단독요담을가졌는데 이자리에서 이문제에 관한 中共측의 반응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게 관측통들의 견해다.

슐츠장관의 中共방문때 韓叙中共외교부차관이 슐츠장관에게 南·北韓대화를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나 東北亞정세를 논의할때 한반도문제가 거론되지 않을수없으며, 또 한반도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 지역의 평화유지방안으로 南·北韓 교차승인 문제가 나올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슐츠장관의 『슐츠장관의 中共방문시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美·中共문제때문에 한반도문제는 언급할 시간이없었다』는 설명은 이문제가거론은 됐지만 『中共측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슐츠장관이 機上회견때 『美·蘇등주요국가의 南北韓 교차승인 문제에 대해 어떤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것은 이러한 국가들간의 화해를 바라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것이나 일본이 오는18일 中共으로가는 니까이도(二階堂)自民黨 간사장을 통해 南北 교차승인에 관한 中共측의 眞意를 타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것등을 보면 美·日 양국도 앞으로 南北 교차승인의 실현을 위해 측면지원 할것으로 예상된다.

슐츠장관의 이번 訪韓은 對韓안보공약의 재다짐외에 그동안 잠잠했던 南·北韓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中共측의 관심을 다시한번 어떤면에서건 촉구했다는데 뜻을 찾을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슐츠장관의 訪韓중 韓·美간에 레이건대통령의 訪韓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 소식통은 슐츠 장관의 中共방문은 趙紫陽수상의 訪美를위한 사전布石이며 니까이도 일본自民黨간사장의 訪中도 趙紫陽의 訪美귀로에 訪日초청을 위한 형식적인절차라고 풀이하면서 趙紫陽의 訪美답방형식으로 금년말쯤 레이건대통령이 中共을 방문한후 귀로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슐츠장관의이번訪韓은 韓·美양국간의 우의와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거듭 다짐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 큰뜻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주변정세와 국제정세의 흐름등으로 미루어 南·北韓 교차승인문제는 그의 이번訪韓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관심을 끌게됐다고 볼수 있다.

【李在武기자】

◇어느때보다 가장 「원만한 韓·美관계」를 반영하듯 訪韓중 바쁜日程속에서도 슐츠美국무장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다. 사진❶은 韓美외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李範錫외무와 슐츠장관, ❷는 金相浹총리를 예방하는 모습.

퀴즈는 아니지만 다음에 적은 날짜들의뜻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①9월1일 ②10월8일 ③12월2일 ④1월5일 ⑤1월12일 ⑥1월21일이전 ⑦1월31일 ⑧2월9일이전 ⑨2월11일 ⑩2월13일

이것은 이제 고비를 넘긴 금년 大入日程이다. 참고삼아 차례로 설명하면, ①體能검사 ②學力考査원서접수 마감 ③考査실시 ④성적발표 ⑤前期大·敎育大마감 ⑥同 합격자 발표 ⑦後期大마감 ⑧同 합격자 발표 ⑨前·後期大 추가모집및 專門大마감 ⑩同 합격자 발표다.

비슷한 날짜의 무리가 또 하나있다.

①9월7일 ②10월30일 ③12월6일 ④12월17~18일 ⑤1월14일이전 ⑥1월25~29일 ⑦2월5일

이 것은 서울을 기준한 高入日程이다. 차례로 설명하면 ①體能검사 ②원서접수 마감 ③연합고사 ④前期實業高원서접수 ⑤同 합격자 발표 ⑥後期人文高및夜間 합격자 발표 ⑦同학교배정 등등.

메아리

空月

이에서 보듯, 大入과 高入의 점수따기는 이미 9월에 시작된다. 10월 들면 진학하는 학생과 취업하는 학생이 확연하게 갈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질의 학생을 한데 모아놓은 교실의 분위기가 산만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學力考査·聯合考査가 끝난 뒤에는 일종의 無重力 상태가 온다. 2월초에 개학을 해봐야 교실은 開店休業이나 같다. 덩달아 학교분위기가 들떠서 재학생도 2월한달 학교를 가는둥 마는둥 해진다. 학년말 시험이나 치르며 단축수업을 하고, 월말에는 봄방학이 들고… 길게 설명할것 없이 모든 학부형이 익히 겪어 아는 일이다.

이처럼 空白을 빚는 學事曆은 무엇보다도 3월에 개학하는 學年制에 연유한다. 때문에 제2학기 중간에 방학이 들고, 그뒤의 2월 한달은 자투리의 달이 된다. 진학시험이 한 겨울에 들기 때문에 體能검사를 일찍 할수밖에 없는 난점도 생긴다.

우리가 알기에, 이 같은 「봄철 새學年」은 日本式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알맞는 3학기制를 채택, 2~3월을 독립된학기로 하여, 4월에 개학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日本式 봄學年制와 구미식 2학기制를 섞어 놓은데서 오는 「봄의 空白」이 없다.

작년 9월27일의 「메아리」는 이 같은 흠을 없애기 위해서도, 「9월 새學年」을 검토하도록 제안했었다. 「9월 새 學年」이 합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것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空白의 달」 2월을 다시 맞으니, 그 空白의 손실을 다시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컨대 여러産業분야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는 미국은 심각하게 과학교육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科學振興財團의 조사보고는 미국의 과학교육이 뒤진 이유로, 유능한 교사가 모자란 것, 그리고 일본학교의 수업일수가 최고 2백40일에 이르는데, 미국은 1백80일분임을 들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中·高校의 법정수업 일수는 2백30일 이상이다. 웬만하듯 하지만 우리는 2월한달을 희생하고있다. 그래가지고는 경쟁을 이길만한 수업일수가 확보되지 않는다. 게다가 中·高의 졸업반, 전체학생의 3분의1이 그보다 많은 시간을 入試절차를에 묻어버린다.

金昌悅
<編輯委員>

물론 일본을 포함한 교육주체가 수업시간·수업일수를 줄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줄임은 학생 스스로의 充實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방학을 늘리는 것은 모르지만, 어영부영 등교는 하되, 수업은 하지 않는 자투리 空白은 百害無益이다.

그래서 學年制 조정을 다시 생각한다. 「가을 새學年」이 어려우면, 2월의 空白을 없애는 방도라도 세워야 한다.

그중 하나가 새學年을 아예 2월초로 당기는 것이다. 2월의 空白이 없어 좋고, 수업일수의 여유가생긴다면 5월초 가정주간쯤에 휴가를 주어도 그만이고, 여름방학을 늘려도 된다.

2월초에 새 學年이 들면, 앞에보인 것 같은 進學日程의 소화가 어렵다고하는 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컴퓨터가 主役인 進學업무는 컴퓨터를 부리기에 따라 상당기간을 줄일수가 있다.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면 증설할 것이다. 백만으로 헤아리는 학생의 수업일수를 벌수 있다면 그 것은 값싼 투자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進學日程은 「3월 새 學年」에 맞추느라 너무 느슨한 인상이다. 졸업시험·졸업식 일정등도 2월 한달 「空月」을 메우느라 되도록 늦추어잡는 것이 우리 學事曆의 속사정이다. 進學日程을 대폭으로 줄이면 이런 궁상을 떨어 버릴 수가있다. 기나긴 進學철의 과열분위기를 줄이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듯하다.

이제 初·中·高가 모두 개학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개학아닌 空白의 시작이요 「半放學」이다. 그 폐단과 손실이 적지 않음은, 아침마다 자녀들의 등교길을 전송하는 학부형 모두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太平洋회담 20분동안 說明

옆자리의 柳大使에 "당신이 워커냐"

자리까지 바꾼 異色 外相회담

슐츠 美국무訪韓 이모저모

閣下의용기도한몫

○…全斗煥대통령이 7일 상오 슐츠美국무장관을 맞아 오찬을겸해 가진요담에서는 太平洋정상회담문제와 나까소네(中曾根)日本수상의 訪韓성과등이 거론되고 한국의 人蔘얘기가 나오는등 진지하고화기에찬 분위기속에서 진행.

이날 30분간에 걸친요담이 끝난뒤 이어 全대통령내외가 베푼 오찬에서는 슐츠장관이 太平洋 정상회담과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에 관해 관심을 표명, 全대통령이 이를 상세히설명해주는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는것.

全대통령은 특히 슐츠장관이 太平洋정상회담에 관해 자신이 느끼고있던 궁금증을풀자 20분가까이 이회담의 필요성, 성격등을 자세히설명.

全대통령은『太平洋지역은 이제 世界史的발전과정에서 主導權을 행사해야할만큼 중요한위치로 바뀌어 가고있다』면서『따라서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무역증대 금융투자등 경제협력, 자원개발, 人力交流, 문화교류등에서 협조를 다짐하는 太平洋頂上회담은 서로모여 얘기를 나눠보는데 太平洋頂上회담의 뜻이있다』며 이회담 실현을위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에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는데 슐츠장관은 이에대해『韓日頂上회담의 성공을 축하한다』면서 『이러한 성공은 나까소네수상의 용기와 결단때문이기도하지만 각하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뤄졌다고본다』고 말했다.

韓食으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 人蔘이 나오자 全대통령은 『인삼은 살도 안찌고 건강에좋은 식품』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슐츠장관은 『맛있는 음식을 주어 감사하다』며 인삼을 들었다.

또 슐츠장관이 이날 시찰하게 돼있던 前方의 29高地에 화제가 미치자 全대통령은 『그 고지는 나하고도 인연이 있는 고지로 가보면 北韓지역을 眺望하는데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

슐츠장관은 이에대해『전에 한번 가본일이 있다』면서『그때 가보니 고지너머에는 惡意를 품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뒤 全대통령이 축배를 제의하자 슐츠장관도『마침 어제가 레이건대통령의 생일』이라고 밝히면서『각하내외와 한국민, 그리고 레이건대통령의 생일을 위해…』라며 역시 축배를 제의했다.

南北긴장 豫想外

○…슐츠長官은 7일하오 韓美연합野戰司와 229高地, 캠프·리버티·벨등 전방을시찰.

슐츠장관은 브리핑하는 장교에게 의문나는점을 일일이 물었으며 兩所에 근무중인 美軍헌병들에게 出身地와 하루의업무등을 자세히 묻기도했는데 슐츠장관은 『南北韓의 긴장상태가 이렇게심각한줄 몰랐다』면서 南北대치상황을 몸소하게 카메라에 담는등 열심히 취재했다.

그러면 北韓은 평소 對南방송을 끝없이 해왔으나 이날만은 對南방송을 일체하지 않았다.

한국경제秘訣은…

○…7일상오 슐츠장관의 金相浹국무총리예방은 중앙청총리실 접견실에서 워커주한美대사와 휴즈미국무성대변인등이배석한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

金총리는『귀하의 訪韓은 미국에 대해 日本과中共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행동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슐츠장관의 訪韓을 환영하고『한때 일부미국인중에서 한국은 日本에 대한 관심의 延長정도로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레이건정부가 들어선이후 한국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정상상태로 된점을 반갑게 여긴다』고 인사.

이에대해 슐츠장관은『3개국방문중 한국을 방문하게된것은 미국이 한국의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의 억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訪韓의의를밝혔다.

나까소네日本수상의 訪韓으로 韓·日간에 새로운 우호협력관계가구축된점을 높이 평가하고자한다고 말한 슐츠장관은『소련이나 그밖의나라 지도층이 바뀐다고해서 미국의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미국은 항상 새지도자들을 이해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은모든문제를 현실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분석, 결정하게된다고 설명.

슐츠장관은이어『미국은 항상 현상을 중요시하고협상을통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결정을해갈것이며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한다』면서『방위력을 증강하면서 대화를 중시하며 긴장완화를위해 노력하는 한국의정책이 미국의정책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슐츠장관은 또 南北대화문제에 언급『北韓은 불행하게도 성의있고 실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슐츠장관은『미국경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상당히 好轉될 것』이라고전망하고 한국이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해가고 있는 秘訣을 묻기도.

이에 金총리는『우리국민의 근면한 정신과 인내, 높은 교육열이 우리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기술로 도와주면 더욱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대답.

金총리는 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선진산업사회」의 건설을 강조했음을 밝히고 『미국도 이같은 우리정부의 방침이 이루어지도록 솔직한 충고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河長春기자】

담배피우는者엔 貸付금지

말聯 융자申請때 검사하기로

말레이지아정부는 5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정부융자금을 대부해주지 않겠다고 발표.

이유는 담배를 사피울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태워버릴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정부융자금따위는 필요로하지 않을 것이란것.

사누시 주니드장관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1인당 8백73달러의 정부융자금 신청자는 모두 흡연여부를가려내는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못박았다.

말레이지아정부는 작년말에도 공무원은 어느때건 담배를 피울수 없다는 흡연추방운동을 벌인바 있다. 【쿠알라룸푸르=AP】

海外토픽

포메이토 有害가능

★美國, 有毒性입증은안돼

미국 캔자스대학 과학자들이 일종교배로 개발해낸 감자와 토마토의 잡종식물인 이른바 포메이토는 독성이있어 인체에 해로울지도 모른다고 사이언스誌 최신호가 5일 경고했다.

사이언스誌는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식물을 먹어보겠다고 나서지않기때문에 아직 포메이토의 맛이나 해독성여부가 입증되지는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

바르비死刑 가벼워

★佛고문당했던人士 노파주장

「리옹의 백정」으로 악명높았던 前리옹市 게슈타포 책임자 클라우스·바르비(69)에게 고문을당했던 82세의 한노파는『사형은 그에게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주장.

리옹의 군사법정은 바르비에게 7천5백91명의 유태인들을 나치집단수용소에 수용하고 프랑스 저항지도자 장·모렝을 고문살해한 혐의로 47년과 54년 두차례 사형을 선고했으나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파리=AP】

◇北極도보탐험나선 英청년 영국의 데이비드·헴플만·애덤즈라는 26세의 독신남자가 6일 캐나다를 경유, 세계최초의 북극단독도보탐험을 떠나기앞서 유명한 극지탐험가 로버트·팔콘·스코트(1868~1912)의 동상앞에서 야외기자회견을가진후 포즈를 취하고있다. 【런던AP·특約=聯】

骨髓이식 癌치료법 개발

日, 환자 자신의 몸서 뗀 腸骨사용

일본에서는 골수이식을 사용하는 암치료법이 효력을보이고 있어서 주요한 암치료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일본 가나자와대학교의 핫또리·추니찌교수는최근 심포지엄에서 행해진 35건의 임상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요법은 환자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腸骨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

이요법은 항체세포를 생성시키는 장골에서 암세포가없는 부분을 추출하여 냉동보관해둔뒤 환자의 암세포를약품이나 방사능으로 파괴시켜 그자리에 이식시키는 방법이다. 【東京=聯】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및
제6회 수 학 경 시 대 회

본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학구력의 장려와 우수한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수학경시대회와 문학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제6회 수 학 경 시 대 회

◆참가자격 : 20세 이하(1962년 2월20일이후생) Ontario 고교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부~9, 10, 11학년 Senior부~12, 13학년

◆시 간 : 1983년3월12일(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University of Toronto Melennan Physical Lab Room 102 60 St. George St.

◆출제방식및 수준
• 영문으로 쓰여진 수학문제.
• Junior부는 9, 10, 11학년 수준.
• Sinior부는 12, 13학년 수준.(단 13학년 Calculus와 Algebra제외)
• 문제는 선다형(Multiple Choice)으로 틀린답에는 감점함.
• 30문제 제한시간 1시간30분.

◆등록방법 : • 아래의 양식대로 서신으로만 접수함.
• 참가자의 이름(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 2067 ISLINGTON AVE. NO. #1114 WESTON, ONT. M9P 2R8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Senior부 1, 2, 3등(장학금및 상패) Junior부 1, 2, 3등(상패및 부상)

◆참가비 : 없음.

◆문의전화 : 김중수 247-2998, 임정혁 463-1234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

◆참가자격 : 20세이하(1962년 2월20일 이후생)
Ontario 고교 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Senior부 구별 없음.

◆응모요령 :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수필(Essay)을 아래의 양식대로 모집 함.
• Suggested Guideline: 한인교포사회나 이민1세들인 부모님들에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할것.
• Length: 한글 200자원고지 15매 내외, 영문 500 Words Typed.

◆등록방법 : 완성작을 우편으로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주소로 보내기 바람.
(참가자의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 173 Roxborough Dr. Toronto, Ont M4W 1X7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우수작및 장려상(상패및 부상)

◆참가비 : 없음.

◆문의전화 : 이영희(964-6672), 김은희(421-8360)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주최 : KUSA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한인재미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 지부)

全警官에 교통團束權

治安본부 都市질서확립방안 마련

市街地 운전教習 양성화
道路 안내標識 대폭 증설

치안본부는 7일 도로안내 표지의 숫자를 늘리고 내용을 보완하며 시가지운전교습 제도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모든 교통안전 시설을 국제규격으로 대폭증설하고 교통질서가 정착될때까지 모든 정·사복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할수 있도록하는등 강력한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교통 건설 문교 보사부와 서울시 자동차보험 전국 택시·버스연합회등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질서확립 방안을 밝히고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서울 釜山등 대도시 신호체제를 모두 전자 신호로 현대화, 서울의 90개소를 연내에 1백80개소로늘리고 釜山에도 10개소를 신설키로했으며 가변차선을 확대하고 터널 고가도로 다리등에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키로했다.

도로안내 표지도 국제규격화, 3만7천5백여개를 증설하고 이미 설치돼있는 2만5천1백여개는 국제규격으로 바꾸기로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의 과실 사고와 법규위반내용을 점수화, 개인별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연간1백21점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시험응시자격도 1년동안 제한하며 사고와 법규위반차량이 많은 회사는 그 정도에 따라 사업면허를 일부 또는 전부취소하고 보행위반자도 교육을 2~3시간씩으로 강화하기로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종전의면허증따기식 면허시험제도를 탈피, 질서의식을 정착하기위해 학과시험에 안전수칙을 추가하고 지금까지 금지해온 시가지 교습행위도 양성화하기로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장과 유원지질서확립을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하고 각종 프로경기때에는 구단이나 프러모터가 경비원을 고용, 암표와 경기장내 난동자 주류판매 등을 단속토록했다.

새마을 사업 廣域圈 추진
5~10마을 묶어

내무부는 7일 지금까지 마을중심으로하던 새마을사업을 5~10개마을을 1개권역으로묶어 개발하는 광역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일상생활권과 관련된 인근지역을 개발, 농촌정주기반을 조성하기위한 시책으로 우선 올해안에 각도와 군에 1개소씩의 시범권역을 설정토록했다.

내무부는 각시범권역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는데 새마을사업이 이처럼 광역화되면 지금까지 마을단위 새마을가꾸기 농로·하천 정비등 소규모사업으로 해결할수 없는 큰 교량이나 농로 개설등 대단위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새마을 광역권은 학교 시장 주산단지 몽리구역등을 하나의 광역새마을 사업지역으로 개발할수 있는 곳을 시장 군수가 선정하고 새마을 광역권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非情한 아빠 세딸殺害
30代영장 부인家出 홧김에 목졸라

6일상오8시께 서울江南區驛三洞784의2 개나리아파트앞 움막집에서 넝마주이 李相天씨(36)가 잠자고있던 장녀 泰錦양(8) 2녀 泰花양(6) 3녀泰美양(4)등 세자매를 차례로 목졸라 숨지게했다.

李씨는 범행후 높이1m70cm의 벽에 붕대로 목매어 자살하려다 때마침 놀러온 친구 崔載喆씨(38·고물상)가 발견해 경찰에 붙잡혔다.

李씨는 경찰에서부인 李모씨(30)가 지난달25일 경기 楊平郡 玉泉面新福里 친정으로 빚1만6천원을 갚는다며 집을나간뒤 소식이없자 이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저질렀다고말했다.

李씨는 지난75년 부인李씨와결혼했는데 약4년전부터 부인이 5차례나 이유없이가출하는등 가정불화가 심한데다 이날부인이 10일간이나 귀가하지않자 『혼자고생하며 세딸을키우느니 차라리 함께죽는게낫다』는 유서를 써놓고 잠에서 깨지않은 세딸을 차례로 살해했다는것. 경찰은 李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夫婦 싸움후 남편을 殺害

【江陵】강원 江陵경찰서는 7일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한 김옥희씨(32·여·강원江陵市校洞994의25)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李順子여사·술츠夫人 환담

어제 靑瓦臺서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7일상오 靑瓦臺에서 방한중인 조지·술츠美국무장관부인 헬레나여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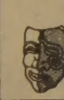
이에앞서 헬레나여사는 이날 상오9시20분 세브란스병원 소아재활원을 방문, 장애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돌아봤다.

7개 調味料식품에 誇大광고 是正지시

보사부는 7일 7개조미료식품에 대해 과대광고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최근 이들업체가 화학적 합성품을 비천연식품을 첨가 제조한 조미(調味)식품을 마치 천연식품이나 이와 유사한것인양 과대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人間사자」의 變身
明星콘더미니엄 課長된 朴贊希
"社會생활 타이틀매치하는 기분"



며칠전 서울노량진 경찰서에 전WBC플라이급 세계챔피언 朴贊希선수(27·사진)가 불쑥 나타났다.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보아 『저 친구 주먹을 휘둘렀구나』고 모두 생각했다.

그러나 전챔피언은 차를 몰고가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것이었다. 한 경찰관이 『상대방의 잽을 염으로 흘리듯 피했으면 될것이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으나 링밖에서의 전챔피언은 수줍어 하다 대답도 못했다.

그의 표정에선 사각의 링을 주름잡던 사나움이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시민의 모습 그대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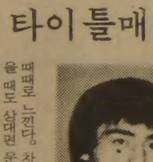
지난연말 세계챔피언에서 明星콘더미니엄 상담부과장으로變身한 그에게선 걸음마를 시작한 사회인으로서의 체취가 풍겼다. 『요즘은 운동할때 육체적으로 느꼈던 피로보다 몇배더한 정신적인 피로감에 젖어있다』는 그의말은 이를 입증이나 하는듯 하다.

朴선수는 처음엔 난처한일이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콘더미니엄을 상담하려온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사무실을 잘못 찾아오지나 않았나하고 당황할때는 그사람보다 더 당황감을 느꼈고, 사원으로 취직했다는 사실을 알고난후는 이처럼 가냘픈 체구에 깨끗한 얼굴을 한사람이 어떻게 치고받는 권투를 했느냐는듯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볼때는 몸둘바를 몰랐다는 고백이다.

그때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11년간 권투선수 생활을 하며 이겼을때 들려오는 팬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나 졌을때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가 시합의 승패만큼이나 단순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

그러나 스포츠맨이었던 보람을 때때로 느낀다. 차량접촉사고가 났을때도 상대편 운전사가 알아보고 많은 양보를 해주었다. 콘더미니엄 상담을 하러온 손님도 『열심히 살아라』라고 격려하며 콘더미니엄을 사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단순히 승패를 걸고 뛰었던 권투선수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생활을 하려면 보다더 스포츠맨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회전 타이틀매치를 하는 기분으로 뛰어야겠지요』링의 챔피언이 사회에서도 챔피언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鄭在龍기자】



우리나라로「無人工場시대」온다

한국科技院 로보트FMS(多품종 大量생산)方式 개발

로보트가 鎔接하고 故障수리까지
音聲도알아듣는 기술開發에 박차

◇로보트산업기술의 최첨단인 「무인공장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열린다. 사진은 李박사가 지난77년조립, 세계를 놀라게했던。NC로보트。 【朴泰弘기자찍음】

우리도 말로만들어오던 로보트 무인공장을 가질날이 멀지않았다. 「무인공장」은 로보트가 단순작업을 맡는 초보단계와는달리 공장의 전공정을 맡아하는 로보트산업시대의 첨단. 日本,미국등 극히 제한된 선진국만이 실용화단계에있는 초정밀기술인데 우리나라 기술진이 한국형로보트를 개발하는데 성공,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정밀기계실 (실장李奉珍박사·51) 연구팀은 7일 로보트에의한 다품종 다량생산방식 (FMS. Flexible Manufacturings System)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우리기술진만으로 언제라도 로보트무인공장을 만들어 낼수있다」고 밝혔다.

李박사팀이 국내서 처음으로 개발해낸 FMS방식을공장에 도입할 경우 공장은 완전 無人化돼, 서로 다른 종류의 수많은 로보트들이 자력으로 쇠를 자르고 깎거나 용접, 또는 나사를조이고 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낼뿐만아니라 기계의고장도 자체적으로 진단하거나 수리, 완벽한 생산시스팀을 갖추게 된다.

FMS는현재모자동차회사가 보유하고있는「로보트팔」에 두뇌를 붙이는것과 같은 원리로 일본 미국 스웨덴등 극히 소수의 선진국들도 최근에야 기술개발에 성공, 현재 실용단계에 들어섰다。이번 李박사팀의 성공으로 우리의 로보트 산업기술은 선진국의 대열로 껑충 뛰게됐다.

李박사팀의 FMS 기술개발은 각고15년만에 이뤄진개가로 더욱 뜻이깊다.

우리나라에서 로보트 연구가 시작된것은 지난68년부터. 일본 東京大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李박사가 두뇌유입계획으로 귀국한때가 바로 그해로 KAIST는 그때부터 첨단기술인 로보트산업의 연구에 나섰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했다. 선진국들은 기술적인 자료를 봉쇄, 하는수없이 李박사팀은 외국의 학술잡지등을 참고해가며 자체연구에 나섰다.

산업용 로보트에서 가장중요한부분은 NC(수치제어)장치。NC는 심장부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연결돼 자체적으로 거리감각등을 읽어내는 기능을 갖고있다。NC장치와 공작기계및 이두가지를연결하는 MI장치(기계적연결장치、Machine Interface)로 이루어진데 초기에는 MI장치의 개발마저도 완전하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된것이 MI장치에 있어서 로보트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할때 동력원인 모터의 변속에서 나오는 정밀도의 오차였다。이때의 정밀도는 10cm의 5μ(1백만분의5mm)의 오차를 극복해야하는 초정밀이었으나 이것은 지난76년 자체연구로 해결됐다.

뒤이어 李박사팀이 76년 MI장치를 완성、외국에서 구입한 NC를 조립、처음으로 산업용 로보트를완성했고 얼마안있어 마침내 NC마저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NC장치는 점과점을연결、물건을 이동하거나 용접을 가능케해주는 PTP장치(Point to Point)와선으로 연결해주는CPC(Contouring Path Control)장치등 2가지로구성되는데 고도의 초정밀기술의 벽을 넘어야만한다.

CPC방식에 의해서는 도장작업과 선으로 연결된 부분의 용접등이 가능해진다.

이PTP방식에의해 처음 개발된 산업로보트가 지난78년 시카고 국제공작기계전시회에 출품돼 세계를 놀라게했다. 그당시 30여개국 1천여개 회사의 기계제품이 전시되었는데 H사등과 공동개발한 NC선반과 범용(汎用)선반등 3종의 기계가 처녀출품되어 한국의 로보트 산업기술이 국제적으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그당시 일본등지의 매스컴은 李박사팀의 기술을 극찬했는데 日本産業經濟신문은 『학생인입장의 한국로보트기술이 3년이내에 일본을 능가하게 될것』이라 예견하고 『자유중국등 개발도상국에선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또 81년10월 東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로보트국제심포지엄에 NC의 국산화등이 발표되자 정밀기계기술이 발달한 스위스, 체코 등지에서 참석한 교수들도 『우리도 개발해내지 못한 로보트기술을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해내었느냐』고 놀라기도했다는것.

로보트에 의한 무인공장은 사람의 고용능력을 감소시키는 인력수급상엔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제품생산비를30% 절감할수 있는것등 여러가지 잇점이 있어 세계가 앞다퉈 개발에나서고 있는데현재 일본이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갖고 선두주자역할을하고 있다. 일본자동차산업의 세계석권은 로보트산업의 성공에의한것이다.

李박사팀은 이번에 개발성공한 FMS를 오는 4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13차 산업용 로보트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제출할 예정이다.

李박사는 FMS방식을 완성후 더욱더 초정밀기술로 알려진 음성을 알아듣는 로보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朴榮基기자】

◇"야! 오랜만이다"…개구장이 開學 서울을 비롯 전국대부분의 국민학교가 7일상오 일제히 개학했다. 50일동안의 긴 겨울방학을 끝낸 개구장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친구들과 밀린얘기를 나누기에 바빴다. 서울시내의 국민학교는대부분 16·17일의 졸업식에이어 22~28일까지 봄방학에 들어간다. 【7일상오 서울仁旺국교에서】

6개無認可신학교 告發
멋대로 83학년도 新入生모집

문교부는7일 인가를 받지않고 83학년도신입생 모집에 나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합)、총회신학교(서울鍾路區明倫洞3街58)등 6개 무인가신학교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한편 전국의 무인가 신학교의 운영실태도 조사키로했다.

문교부에 의하면 이들 6개 신학교는 지난 1월초부터 일간지및 교회지등에 학생모집 광고를내고 30~90명씩의 신입생을 뽑았다는것.

문교부에 적발된 무인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교(교장·이진태·서울西大門區弘恩3洞265의339)▲대한예수교장로회(총합) 총회신학교(교장·신사훈·서울鍾路區明倫洞3街38)▲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총회장 박병훈·서울銅雀區大方洞97의3)▲한일신학원(서울九老區開峯洞산22의1)▲재단법인 애향숙 선교보육과(서울東大門區面牧洞12)▲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합동·정통·이사장 김준상·서울江南區方背本洞773의10)

"前妻아들 버릇 좀 고쳐달라"
繼母부탁…몽둥이로 숨지게
30代보일러工 立件

서울 東大門경찰서는 7일 姜萬植씨(32·보일러공·서울西大門區延禧洞519의26)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하고 尹錫順씨(36·여·서울東大門區龍頭洞36의3)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姜씨는 지난5일하오4시30분께 尹씨로부터『의붓아들 金모군(7)의 도벽이 심하니 버릇좀 고쳐달라』는 부탁을받고 안방에 金군을 가둔뒤 길이50cm、두께5cm가량의 각목으로 엉덩이등 온몸을 20여분간때려 의식을잃은 金군을 인근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게했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安鎭鉉씨

독립유공자 安鎭鉉씨(사진)가 6일 오후7시50분 서울銅雀區鷺梁津洞31의 236자택에서 지병인 고혈압으로 별세했다. 향년61세. 발인 8일상오10시, 장지는 서울공원묘원. 연락처 813-8858.

독립유공자 張興씨

독립유공자 張興씨(사진)가 6일상오6시30분 서울江西區木洞사95의25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0세. 발인은 9일상오11시. 장지는 국립묘지. 연락처 602-1888.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JAPANESE RESTAURANT
MIKA
みか
⊙일본요리
⊙냄비우동
⊙튀김
⊙사시미
⊙월~금 : 점심 12~2:30
저녁 6~10:30
⊙토~일 : 저녁 6~10:30
2750 Danforth Ave
(at Dawes Rd.) Toronto
Tel: (416) 698-0283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읫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Eglinton
CHINA HOUSE
Bloor
Keele
Bathurst
Bayview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401
427
한인식품
Rathburn Rd
Holiday Dr
Burnhamthorpe Rd
The West Mall
The East Mall
Martin Grove Rd
Safeway

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HAMAMOTO
Authentic Japanese Cuisine
○일본요리
스시, 사시미 덴뿌라.
○소단체 예약 환영.
○Take out도 합니다.
■술 면허 있음. (LLBO)
Dalecliff Plaza
221 Ellesmere Road, Scarborough, Ontario
(just west of Warden)
Telephone: 444-2211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00－다음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날2시까지
DUNDAS ST. W.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 윤 호 섭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強訓현장을 가다

三美슈퍼스타즈 (上)

『三美여! 제발 이겨다오』 이다. 시즌이 한창이던 82년여름 三美슈퍼스타즈의 홈구장 仁川야구장 정문에 걸렸던 격문이다. 仁川팬들은 목마르게 三美의 승리를 기다렸지만 홈·그라운드에서 조차 三美는 슈퍼스타즈 다운 면모를 보여주지못했다. 우승팀 OB에게는 16연패의 빚을 남겼다.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자. 슈퍼스타즈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어보자』는것이 83년 팀지휘권을넘겨받은 金振榮감독의 외침이다.

팀 재건에 나선 三美구단은 金감독의 진언에따라 재일동포투수 張明夫와 내야수 李英求, 그리고 任昊均 金相基 柳鍾天 金振雨 朴明雲 李善雄 鄭丘旺등을 스카웃, 팀면모를 일신했다. 처음 프로팀을 맡았지만

◇최하위의 굴욕을 씻기위해 땀흘려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三美 슈퍼스타즈。

億臺투수등 팀再整備

"「脫꼴찌」가 목표아니다"

金振榮감독은 자신만만하다. 徐定煥을 해태에 빼앗긴것에 분통을 터뜨렸던 金감독은 약1억5천만원을 주고 張明夫와 李英求를 데려온 후 기쁨에 넘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 따뜻한 곳 필요없읍니다. 선수 뽑는데 큰돈썼으니 이젠 비닐하우스속에서나마 열심히 훈련하겠읍니다』

仁川구장에는 대형 비닐하우스가 세워져있다. 길이40m, 폭20m, 높이최고 9m의 세모꼴비닐하우스는 三美가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1천7백만원을 들여만든 실내연습장이다. 三美는 플로리다나 괌이니 하던 당초의 허황된 꿈을 버리고 이비닐하우스에서 83년 한해를 버틸 怪力을 기르고 있다. 상오9시에 에어로빅으로 몸을 푼다. 10시부터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단련한다. 11시부터는 배트·스윙, 티배팅, 프리배팅이 시작된다. 하오 2시30분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도중 A·B조별로 쪼그려 앉아서 준비해온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운다.

2시30분엔 비닐하우스를나와 수비연습을 한다. 자리를 옮긴다. 산기슭을 오르막은 경사로 싸고돌아 약 1천2백m로 뻗친 흙밭길은 仁川시가 육상훈련을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들어 만든 육상전문훈련코스다. 흙밭길의 포근한 감촉이발길을 가볍게 한다.

『이런데서 뛰면 육상선수가 쏟아져 나오겠는데』 탁구단 훈련장착에 나섰던 국가대표 육상선수출신 李相國 해태타이거스과장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육상명문 仁一女商의 崔秉錫코치가 슈퍼스타즈들에게 인터벌훈련으로 빨리 달리는법을 가르치고있다.

『한주일에 한번 이상은 처을 찾아 피로를 씻읍니다. 선수들 모두가 지난해의 굴욕을 씻자는 각오들로 대단합니다』

三美의 목표는 「脫최하위」가 아니다. 金振榮감독은 「감독이라기보다는 짠물을 먼저 마신 선배로서 정상을 향해 후배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方錫崗기자】

「20일天下」로 끝난 韓國化

여자實業농구 오늘 8強戰

1월優勝…

종합농구 선수권 대회(1월15일) 우승팀 韓國化粧品이 예선서 침몰했다. 6일문화체육관서 진행된 제5회 전국여자 실업농구 대회 예선리그 최종일 경기서 C조의 코오롱은 韓國化粧品을 70—60으로 완파, 2승으로 C조 수위를 차지했으며 2패의 韓國化粧品은탈락했다.

8강전은 8일 속행되는데 鮮京—保證基金, 太平洋化學—外換銀行, 國民銀行—東邦生命, 코오롱—商業銀行이 각각 4강 진출권을 다툰다.

이날 D조의 保證基金은선수 부족의 第一銀行을 후반에 맹렬히 공략, 종합선수권대회에 이어서 第一銀行을 79—68로 제압, 8강에 진출했다. B조의 鮮京은 朝興銀行과 열전끝에 50—50으로비겼고, A조의 國民銀行은 서울信託銀行을 74—65로격파, 2승으로 A조 수위를 마크했다.

◇예선리그 최종일

▲A조 국민은행 74 (30-44, 32-33) 65 서울신탁

▲동순위=①국민은행2승②상업은행1승1패③서울신탁

▲B조 선경 50 (24-26, 21-29) 50 조흥은행

▲동순위=①선경1승1무②외환은행1승1패③조흥은행1무1패

▲C조 코오롱 70 (35-35, 34-26) 60 한국화장품

▲동순위=①코오롱2승②동방생명1승1패③한국화장품2패

▲D조 보증기금 79 (43-36, 31-37) 68 제일은행

▲동순위=①태평양화학2승②보증기금1승1패③제일은행2패

「白山시대」 재확인

高校배구 라이벌戰 우승

女高部선 一信女商

전북 白山高와 一信女商이 KBS신춘고교 배구 라이벌전 남녀부에서 각각 우승했다.

6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된 대회 최종일경기서 白山高는 仁荷師大附高를 3—1로 제압, 지난해 3관왕에이어 올해도 白山시대를 예고했다.

一信女商도 光州 松源女商을 3—0으로 물리치고 여고 최강을 재확인했다.

◇최종일 전적

▲남고부

전북 백산 3 (15-8, 8-15, 15-7, 15-7) 1 인하대부고사

경북사대부고 3 (15-3, 15-8, 15-7) 0 서울 문일

▲동순위=①백산3승②경북사대부고2승1패③인하사대부고1승2패④부일3패

▲여고부

서울 신 3 (15-4, 15-11, 15-4) 0 광주 산

부일 명 3 (15-11, 15-10, 15-11) 0 전주 근영

▲동순위=①일신여상3승②덕명여상2승1패③근영여고1승2패④송원여고3패

張正九 KO勝

比아벨라를 2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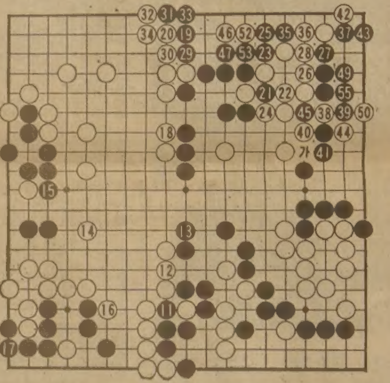
WBC 라이트플라이급 5위 張正九는 6일 全州 실내체육관에서 필리핀의 티토·아벨라를 2회 KO로제압했다.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제14기)

第9局第7譜 (각5시간·덤5집반) 111~155

白(4段) 李相澈 <1勝1敗>

黑(6段) 張秀英 <2勝0敗>



黑軍 계속 쾌조

黑11, 13을보더니 李4단은 고개를 저었다. 노림이 또 빗나갔다는 표정. 이제와서 白16으로 17자리를 먹어 처도 수가 나지 않는다. 즉 참고도의 白1이하 白8로 우선 5궁이 되지만 黑9로 끊는 수가 들어서 11, 13으로 조이고 白이 9자리를 이을때 15로서 완생이다.

하는수 없이 白16으로 黑17을 허용했지만 이결과는 우선 귀에서 白1점과 黑11로 따먹힌 白1점 (11자리는 白이 선수로 이을수도 있는곳)을 보태주어 공연한 손해。 만약 2、3집정도 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패인이 될지 모른다。

다시금 생기를 볼면 張6단은 黑21이하、25로 白을 허용하더니 거게 만들고 白26、28을 종용하더니 틈 黑29이하 37까지 끝내기를 겸하며 白을 위협、갈수록 호조。 이런 李4단은 몽두에 바빴다。

그런가운데서도 白38、40이 탄력섬 있는 수법이며 44는 패감자랑인 동시에 장차 白「가」의 선수를 보면서 제자리 삶에 보탬으로 삼자는 수다。 하지만 전체형세는 아직도 黑의 수중에서 떠날줄 모른다。 48、51、54…패。 【一凡】

"對蘇戰 해볼만하다"

키·體力 앞서지만 細技모자라

기습速攻펴면勝算

本社、泰청소년축구 柳단장과 國際전화

제1회 泰國 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東歐의 강호 헝가리를 물리친 여세를 몰아 8·10일밤 蘇聯과 두차례에 걸쳐 준결승전을 벌인다.

공식선수권대회가 아니지만 한국청소년 대표팀의 4강 도약은 뉴델리 아시안게임 참패쇼크후 재기를 노리고있는 한국축구에 활력을불어넣은 쾌거였으며 앞으로더욱 팀웍과 기량을 다듬는다면 오는 6월 멕시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8강에도도전할수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었다.

소련, 폴란드, 헝가리등 아마축구 강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서 한국선수들은 신장의 열세를 강한 팀웍과 고삐풀린 야생마처럼 부지런히 뛰는 기동력으로 커버, 성과를 올렸다. 연습을 거의 하지못한 상태에서 출전한 한국이 호성적을 올린것은 朴鍾煥, 元興載 코칭스태프가 노력한 결과이다.

蘇聯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본사는 7일 방콕 맨해턴 호텔에 묵고있는 한국선수단 柳敏哲단장과 국제전화를 연결, 소련의 팀컬러와 강약점 및 대전전망등을 알아보았다.

—소련과의 경기서 승산이 있는가.

▲정상 컨디션만 발휘하면 승산이있다. 그러나 예선에서 B조의 한국은 A조에속한 소련보다 1게임을 더치른데다가 5일과 6일 계속 게임을가져 체력소모가 심해 조금 피로한 상태에 있다. 8일 게임은 불리할지 몰라도 10일에는 풀컨디션으로싸울수있다.

—소련의 전력은.

▲청소년 대표팀으로 동구권상위에 속한것으로 알고있다. 평균신장 1m80으로 한국보다 체력이 우세하고 힘의 축구를 구사하고있다. 수비가 강하고, 공격진도 발동이 걸리면 상당히 예리하지만 유연성과 세기(細技)가 부족하고 작전면에서도 뚜렷한 강점이 없어 해볼만한상대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어떤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가.

▲소련은 스위퍼 시스템을 쓰고 있기때문에 공격에비해 수비가 견고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 HB·FW陣이 유연성이 부족한 소련수비선수들을 외곽으로 끌어낸후 만 있다면 게임의 주도권을 잡아 선제득점도 가능하다. 수비중심의 플레이를 하다가 기회를 잡으면 기습속공으로 두드린다는것이 한국의 기본전략이다.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떤가.

▲대체로 좋다. 그러나 FB 張政이 헝가리와의 경기서 두번 경고를 받아 준결승전 1게임을 못뛰게됐고 HB 金三洙가 발목부상으로 준결승전 출전이 어려운 상태다. 우리는 예선 5게임서 16골 (평균3·2골)을 빼내 놓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李孝根 (5골) 申連浩 (4골) 李太炯 (2골)도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청소년 게임은 무엇보다정신력이 중요하다.

◇泰國 청소년축구 한국—헝가리전에서FB 文元根⑬이 헝가리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한국이 2—0으로 완승. 【방콕 6日AP特約=本社】

蘇와 두차례 準決勝戰

한국、헝가리完破 2位로 4強에

泰 청소년축구

【방콕=本社국제종합】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이7년만에소련과 두번째 대결을 벌인다.

제1회 태국국제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6일밤 헝가리를 2—0으로 제압하고 예선리그 B조2위로 4강에 진출, 예선리그A조1위를 차지한 소련청소년대표팀과 8일하오8시、10일하오9시45분(이상한국시간)2차례의 준결승을 펼친다. 결승전은 12일 열린다.

예선리그 B조1위인 폴란드는 A조2위인 태국 A와2차례의준결승전서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76년 제2회이란왕자배 청소년축구대회서 소련과 처음맞서 1—0으로 패했었다.

한국은 헝가리와의대전에서 李孝根(18분)과 盧仁佑(37분)가 각각 1골씩을 뽑아 2—0으로완승、3승1무1패로 동률이 됐으나 골득실차에서앞서 조2위를 차지、준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A조예선리그 최종경기서는 태국A가 인도네시아에 1—2로패해 A조2위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는데 태국A는 준결승전에서 한국과의 대전을 피하기위해 2진을 기용, 소극적인 경기를했다.

◇제10일전적

▲B조 한국 2 (2-0, 0-0) 0 헝가리

▲동순위=①폴란드 3승2무②한국3승1무1패③태국B2승3무 (2·3위순위 골득실차) ④헝가리 2승1무2패⑤싱가포르1승4패⑥오만1무4패

▲A조순위=①소련3승1무②태국 A2승1무1패③인도네시아2승2패④말레이지아1승3패⑤중공1승3패 (4·5위순위 골득실점차)

테니스惡童 매켄로、7連敗끝에 렌들꺾고 기염

테니스의 惡童 존·매켄로(미국)가 이반·렌들(체코)에 대한 징크스를 깨고 7連敗끝에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매켄로는 6일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진 US인도어 프로테니스 결승전서 숙적 렌들을 3—1(4—6, 7—6, 6—4, 6—3)로꺾고 우승했다.

매켄로는 80년 프랑스오픈 준결승서 렌들에 진 이래 연속 7게임을 패배했으며 20세트중 단1세트 밖에 뺏지 못하는 수모를 당해왔다.

반면 렌들은 이날 패배까지 81년4월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부터 시작된 인도어경기 66연승 기록을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날 3시간의 접전이끝나자 매켄로는 라켓을 공중으로 내던지며 기쁨을참지 못했고 1만3천여명의

매켄로는 첫세트를 4—6으로 잃어 또다시 패배의 빛이 역력했으나 베이스라인서의 랠리를 포기하고 서브·앤드·대시를 살려 리드를 잡았다.

2주전 뉴욕의 볼보·매스터즈에서도 매켄로를 완파한바 있는 렌들은 『서비스가 안먹혔다. 퍼스트·서비스가 평소같이 들어갔다면 그의 대시를 허용하지 않았을것』이라며 패배를 아쉬워 했다.

매켄로는 이 대회의 우승으로 5만4천달러, 렌들은 2만7천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필라델피아6日外信綜合=本社】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960>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20)

『이력 만두라님은 그렇다 치고 도장님은 놓아 양주와서도 뭐전에만 맴돌다 가시니, 그러다간 제두섬에 못하고 처자와 이별하시겠소』

계화가 이경순을 들어 놓다을 하니 경순은 껄껄 웃었다.

『허허 그렇다면 이거 처자 면으로는 갈 수가 없는 모양일세』

『대신 삯아달을 수야 있나』

황화가 말하자 경순은 시원스럽게 말하였다.

『마누라를 보살로 빼앗기느니 아예 내가 집에다 신당 배설하고 향도들을 모아야겠군』

『거 좋은 얘기요. 창단 파주까지 닿아도 임진 남녘은 모두 미륵 향도 색이 될게요』

황화가 기뻐하였고 계화도 신이났다.

『향도만 모아 놓아요. 내가 오든지 스님이와서 주재할터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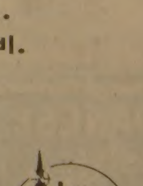
장쇠의 모친 황삼을 빌미삼아 벌였던 넋굿은 의외로 문산포 주막에 미륵님의 신당을 모신다는 데로 진전되어 버렸다. 전생이는 진작부터 천불산 법회에도 다녀오고 경계의 계원으로도 활약하였으므로 굳건한 미륵향도의 답이었고 장쇠도 계기가 좋아서 향도로 되기가 원이었던 터였다. 이경순은 비록 겸계 상투계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지난번 풍얼스님이주도한 구월산 모임에도 갔었으나 자신이 진정한 미륵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시세에 민감한 상인 출신으로서 그들의 개혁하려는 뜻에 동조하였고, 그는 여주에서의 패가하던 일이며 아내를 잃던 일이며를 잊을수가 없었다. 이러한세상은 반드시 뒤바뀌어져야한다는 것은 그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목숨까지도 흔쾌히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만 경순은 이러한 자신의 뜻이 박대근이나 대용 같은 이들과 통하는 것이오, 미륵이건 성조님이건 하는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니 별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묘옥은 달랐다. 그 여자는 한속에 흐르는 신령의 피를 어찌할 수가 없었으며, 여환은 그 여자에게 진작부터 의미심장한 삶의 가치를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해주 송림방 바닷가 절벽 위에서 묘옥이 바다로 뛰어 들려고 했을적에 여환은 그 소매를 붙잡고 말해 주었다. 목숨이란 돋는 햇빛에 스러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지만 영롱하게 초록을 적시듯 아름답고 귀한 것이오. 부처님께 마음을 의지하고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일처럼 제 인생을 사시오. 건강하게 살수있게되면 다른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주어야 하오。 묘옥은 미륵을 얘기하는 여환의 열띤 설법 속에서 자신의 전생에서 찢긴 상처들이 따뜻하게 어루만져지는듯한 감동을 느꼈다。 묘옥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몇겹이 두겹의 전생이 있었다。 한겹은 길산을 만나기전의 삶이었다。 중화에서 집을 뛰쳐나와 색상에게 팔려가고 창기가 되어 관산과 객가를 흘러 다니던 때의 아득한 기억들은 묘옥에게는 이승의 삶이 아닌듯이 여겨졌다。 또 한겹의 전생은 길산이 죽은 것으로 알던날밤 송림방의 말바위 위에서 자진하려던 순간 부터였다。 묘옥은 그때에 죽었고、이경순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되살아났던 것이다。 묘옥은 사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뜻을 가졌건 알바가 아니었다。 다만 그여자는 살아가는 것의 가없음을 품안에 넣어 녹여 주시는、끝없이 크고 넓은 미륵님의 작은 아기가 된것만이소중하였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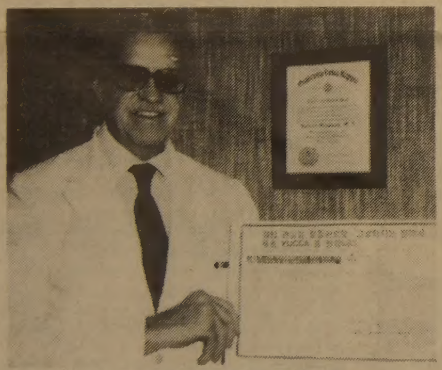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라트롭유카 건강제를 권합니다.

임상실험을통해서 의학적으로 효과가입증된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 본사 라트롭 유카를 직접 임상실험했던 의학박사 빙햄 ●



〔로버트 빙햄박사 약력〕

- 현국립관절염의학진료소병원원장
- 현에스퍼낸자 인터컴유니티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
- 미 콜로라도 의과대학 졸업
- 펜실베니아대학병원과 뉴욕 정형외과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수료
- 미국방성군의관(2차 세계대전)
- 미국 외과의사아메리칸학회와 정형외과의사 아메리칸학회특별회원
- 미 서부정형외과의사협회특별회원
- 전 AMERICAN ACADEMY OF APPLIED NUTRITION 회장
- A CHARTER FELLOW OF I. C. A. N.
- 정형외과(관절염)에 관한 임상실험연구저서 50권 이상 발간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진들

- 의학박사 : 빙 햄 DR. ROBERT BINGHAM
- 전문의사 : 해 리 스 M. D. HARRIS
- 생화학박사 : 라 가 Ph. D. LAGAL

■ 관절염 부분 ■

- 의학박사 : 로버트빙햄 DR. ROBERT BINGHAM
- 전문의사 : 벨 로 우 M. D. JOEVA BELLOW
- 전문의사 : 버 날 드 M. D. BERNARO

■ 다른 연구소 임상실험 ■

- 의학박사 : 로버트빙햄 DR. ROBERT BINGHAM
- 의학박사 : 폴아세손 DR. PAUL ISAASSON
- 의학박사 : 로버트엘리어트 DR. ROBERT ELLIOTT

■ 신 문 ■

- 관절염신문협회신문 ARTHRITIS NEWS TODAY
- 의학지 JOURNAL OF NUTRITION TODAY
- LET'S LIVE MAGAZINE
- 한국 여러신문

고 혈 압

■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라트롭 유카를 하루에 2알씩 3번 복용시킨후 임상실험 결과 ■

〔첫그룹〕 평균 혈압이 180 SYSTOLIC/94 DIASTOLIC었으나 라트롭 유카를 6개월 이상 복용후 24 SYS. 떨어진 156 SYS/80 DIASTOLIC이었으며,

〔두번째그룹〕 평균 혈압이 154 SYSTOLIC/86 DIASTOLIC이었든 환자를 6개월 이상 유카 복용후 130 SYS/72 DIA이었읍니다.

【환자 전부가 관절염을 앓고 있었으며 그중 124명은 만성 관절염 환자였읍니다.】

관 절 염

■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복용시킨 결과 ■

(여자 환자가 64.6%, 남자환자 35.4%) 그중 만성 관절염 환자는 58.9%, 류마치스 관절염 환자 41.1%.)

〔결과〕 60%가 넘는 환자가 탁월한 효과를 보았읍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세】

■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6개월이상 복용시킨 결과 ■

평균 콜레스테롤이 280mg / 100ml이었으나 복용후 60mg이나 줄어든 220mg / 100ml이었으며 아주 높은 환자는 평균 330mg / 100ml이었으나 56mg / 이나 줄어든 284mg /100ml 이었읍니다.

피 TRIGLY CERIDEST

높은 TRIGLYCERIDES 평균 232mg / 100 ml 이었으나 28mg이나 줄어든 204mg / 100ml 이었읍니다"

다른 여러가지 질환

자연건강제 유카 성분은 피에 직접 흡수되지 않고 소장과 대장에서 작용하여 장내의 독물을 발생을 제거하여 뼈마디 사이의관절에 이상을 가져오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활을 하며, 뿐만 아니라 뼈마디 사이의 뻣뻣 함에서 오는 통증을 줄입니다. 이번 임상 실험결과 많은 환자들이 변비, 간헐설사, 복부 팽만감, 장내 개스, 편두통 등에도 효과를 보았읍니다.

■ 계속해서 현재 82년까지 임상실험 ■

국립 관절염 의학 병원과 위의 전문 의사들이 계속해서 2,000여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유카 건강제를 사용 환자들 예방및 치료에 병행해서 쓰고 있으며 그이외 다른 전문 의사들도 유카를 사용 90%가 넘는 환자들이 위의 여러가지 증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관절염 오늘 뉴스에 발표 되었읍니다.

〔알림〕 위의 전문의들과 연구진들은 본사 제품 라트롭 유카로써 임상 실험했던 연구진들 입니다. 위의 연구진들의 임상 실험 결과는 결코 판매 목적이 아닌 의학 전문의들의 연구결과 발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1980년 2월자, 1982년 6월자 "**관절염 오늘 뉴스**" 신문을 참고 하십시요.

증세가 아주 심하신 분 중 라트롭 유카를 치료법과 병행하여 쓰시고 싶은 분은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담당의사를 통해 직접 라트롭 유카를 임상 실험했던 의학박사 빙햄과 연결시켜 드립니다. 정성껏 도와 드리겠읍니다.

라트롭 유카는 자연 건강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므로서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좋읍니다.

고려인삼, 중국녹용 전문 수입상

빅세븐	삼복식품	서울식품서부	동양식품	제일식품
678 Bloor St W.	2437 Finch Ave. W	1391 Weston Rd.	1662 Jane St.	716 Bloor St. W.
☎ 533-7966	☎ 743-8270	☎ 243-9544	☎ 248-5131	☎ 532-1054

저희들의 희망은 여러분들께서 부디 각종 질환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시는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7 BIG SEVEN TRADING CO

빅세븐선물센타

BIG SEVEN TRADING COMPANY
678 BLOOR ST. WEST (고려식품 옆)
TORONTO, ONTARIO
PHONE: 533-7966 대표 김영철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길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수리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광고문의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룸 메이트 구함.(1Bed Room)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782-9777(저녁 5시30분이후)

4 Bed Rm 타운하우스에서 같이 지낼 독신 여자분 구함.
Hwy 401 × 빅토리아파크. 월: $170.-
전화 : 449-1913 Mrs. 채

입주하셔서 가사 돌보아 주실 할머님 구함.
Jane & Lawrence 지역.
전화: 244-2301(오전7시-저녁7시 사이)

Multi-Million달라 Herbal 화장품회사에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쎄일즈 하실 분을 구합니다.
◉안정성있고. ◉자신의 비지네스고.
◉수입이 좋음.회사에서 트레인을 시킴.
전 화 : 364-8932

도넛숍 여자 캐쉬어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스토아 파타임 남자헬퍼 구함.
낮에 일할 분.
전화 : 488-1634 (저녁 6시 이후)

출퇴근하며 유치원다니는 남아(5세) 돌보실 할머니 구함.
시간 : 11시~오후5시까지(주중만)
전화 : 487-8665 (오후4시 이후)

풀타임, 가발 만드실분 구함.
다운타운 위치, 커다란 가발회사
남자 가발 만드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함.
색갈도 들여야 하고 가발 바느질 잘해야함.
영어를 할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함.
전화 : 977-1122 Mr. SCIARA

KOREAN UNIVERSITY STUDENT

Graduates or near graduate person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ternational Canadian company on Korea. Must have a high level of energy and dedication and be specializing in Business and Commerce.

There will be an intensive training program in Toronto and will in future be promoted to a technical representative in Korea. An attractive renumeration package in U.S. Dollars is available to the successful candidate.

Please contact Mr. SCIARA Phone: 977-1122

식자하실 여자분 또는 배우실분 구함.
식자는 추레인 시킴.
단, 타자는 칠 수 있어야 함.
전화: 533-2361 Mrs. 강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Building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지역
전화: 531-1023, 851-4116

레스토랑 매매
전화: 251-1423(오후7시 이후~10시까지 Mr. 이)

헐리우드 복덕방 리스팅
◉2층 4베드룸, 부엌 2개, 목욕탕 4개, 차고 2개 넓은 파킹 Lot.(로얄욕×에그린톤)
전화: 746-4360 JOE DI LILLO
◉Fast Food 비즈네스 달린 빌딩(영×리치몬드)
비즈네스와 부동산 $550,000 또는 비즈네스 $200,000+스탁+렌트
전화 : 746-4360 Joe Tanzos
◉Gift Shop(캐나다스 원더랜드 근방 플라자내)
아스킹 : $22,900 전화 : 746-4360 Mr. TANZOS
Hollywood Real Estate Ltd.

Tuck Shop 급매(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 6시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어 매매
전화 : 633-4983 Mr. 최(오후 1시이후)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 560-0612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모텔: 나이야가라 지역. 13 Units.
35 Units 과 237 의자있는 타번.
49 Units-높은 소득. 135 Units-좋은 장래.
▲타번: 400 의자-높은 인캄. 110 의자-좋은 지역.
Century 21. Darel Properties Inc. Member Broker.
Niagara Falls. Ont. 전화: (416)356-2121

가게 장비일절 매매. 캐쉬레지스타 1개, 유리 쇼우 케이스 2개, 카운터 테이블 1개, 옷걸이 3개, 선반재료 다량. 염가로 매도함. 전화 : 967-4461 Mr. 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3447 St. 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265-9000

레스토랑과 타번 매매
Burlington 다운타운에 있는 좋은 자리. 리스: 17년 6,000 Sq. Ft. 전화: 823-6984 Louis Battista

아담하게 꾸며진 미용실이 딸린 3층건물 팝니다.
서브웨이에서 1 Block
전화: 463-7423(B), 461-3363(R)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Smoke + Gift 가게 팝니다.-벌링턴지역
◉$400,000 Turn over/연매상
◉7년리스 $1,100/월렌트.
◉Asking: $81,900
Many Extra Income, Lottery Video
581 Brant St. 전화: 1-637~2609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Corner Bloor St. at Subway
8 Stores + 1 Dental office + Apt. $850,000
Asking $200,000 Down.
◉11 Store Plaza
$107,000 Net Net Annual Income.
◉Store & Gas Bar. 1·3 Acres $370,000 25% Down.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LE LTD.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미도파백화점 2층 Rooming House 렌트
주: $50.- 씽글침대, 가구 준비되어 있음. 교통 편하고 쇼핑보기 편리함. 전화 : 536-1692

타운하우스 렌트 혹은 매매. 3 Bed Rm.
쇼핑쎈타및 학교 지하철 가까움. 동부 한국식품 근처.
렌트: 월 $630. 전화 : 439-4885

가게(800 Sq.Ft. 월 450 / 렌트) 같이 쓰실분 구함.
Wilson + Dufferin 지역.
전화: 635-7154 Mrs. 김

방 하나 세놓음.
◉월: $150
전화: 466-2455(저녁6시 이후) Mrs. 조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일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illegible]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카나다 韓一銀行토론토지점

문을 열었읍니다!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

손님에게 정성을....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은 금번 새로운 영업장을 **1 First Canadian Place 69** 층으로(2월15일) 이전하여 전반적인 대고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한일은행은 순수민간은행으로써 반세기를 통한 은행경험을 토대로 손님에게 정성을드리는 친절한 써비스로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교민과더불어 성장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민간 은행이 될 것을 다시 굳게 다짐 합니다.

영업안내 865-0456

예금업무	정기예금 (Term Deposit)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정기적금 (Installment Saving Account)
대출업무	당좌대월 · 적금대출 및 개인사업자금대출 적금담보대출 기업사업자금대출 · 무역금융
수출입업무	신용장 개설 · 상업어음추심 수출화환어음매입 ·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송금업무	우편송금 (Mail Transfer)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기타업무	신용조사대행 · 투자상담 경영상담 (Syndicate, Off Shore Loan)

카네이션 정기적금 월부금표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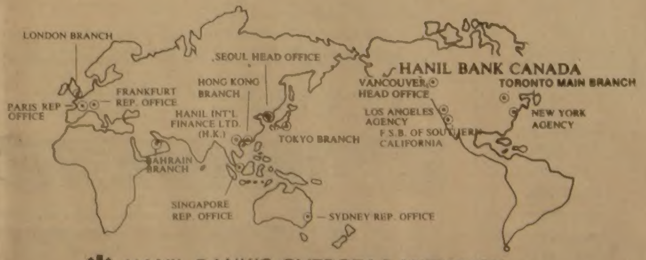
기 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3.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입니다.

새로운 "우리은행" 탄생!

한일은행의 특징

1.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 및 대출의비밀을 절대 보장하여 드리겠읍니다.
2. 저희 은행은 후한 이자에 저렴한 대출로 봉사하겠읍니다.
3. 저희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에 대하여 CDIC보험은 물론 한일은행 서울본점이 보증합니다.
4. 저희 은행은 특히 예금에 대하여는 별실에서 비밀로 취급 처리하여 드리겠읍니다.
5. 저희 은행 카네이션 적금은
   (1)푼돈으로 목돈 마련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불입도중 원하시면 불입법위 내에서 언제든지 융자하여 드리겠읍니다.
   (3)계약금 범위내에서 원하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4)바쁘시면 통장과 함께 부금액을 수표로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통장을 보내드리 겠읍니다.
   (5)부금의 연체가 없으신 분은 만기시 당행 소정의 특별 보너스를 선사하여 드리겠읍니다.



HANIL BANK'S OVERSEAS NETWORK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 BOX 262
SUITE 6960, 1 FIRST CANADIAN PLACE
TORONTO, ONTARIO M5X 1C9

☎ 865-0456

쉬지 않고 가는 시간, 쉬지 않고 느는 이자.◎목돈마련의 지름길 한일은행 카네이션 적금